



###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김 태 현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대학생들의 부모화 정도가  
부모-자녀관계의 질에 미치는 영향

2008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가족문화소비자학과

김 신 희

대학생들의 부모화 정도가  
부모-자녀관계의 질에 미치는 영향

김 태 현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7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가족문화소비자학과

김 신 희

# 인 준 서

김 신 희 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논문개요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간과 되어온 부모화(parentification)정도의 영향력에 대해 재고하고, 부모화가 부모-자녀관계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관련 변인을 살펴보고자 했다.

이를 파악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화 정도의 일반적 특성은 어떠한가?

둘째,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부모화 정도와 부모-자녀관계의 질은 차이가 있는가?

셋째, 부모화 정도와 부모-자녀관계의 질에 차이가 있는가?

넷째, 부모-자녀관계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어떤 것이 있는가?

이상의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Sessions & Jurkovic(1996)의 성인용 부모화 척도를 번역한 한국어판(조은영, 2004)과 최인재(2006)의 한국형 부모-자녀관계 척도와 기타 선행연구를 종합 수정·보완하여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서울시와 경기도에 거주하는 370명의 남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설문조사가 실시되었다.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주요 변수에 대한 전반적인 응답결과를 살펴보기 위해 기술통계를 사용하였으며, 집단 간의 평균비교를 위해 t-test, ANOVA를 사용하였고, 사후검증 방법으로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사용하였다. 또한 변수 간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s correlation과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통해 관련 변수 간의 영향력을 파악하였다.

이 같은 연구의 자료분석을 통해 얻은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들이 지각하고 있는 부모화 정도와 부모-자녀관계 질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부모화 정도에서 중집단에 가장 높은 비율(N=235, 63.85%)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부모-자녀관계의 질에서는 비교적 어머니의 경우, 자녀와 관계의 질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경향을 살펴본 결과 남성보다는 여성의 경우가 부모화 정도가 크게 나타났고, 월 소득 수준이 낮으며, 질병이 있는 경우, 그리고 가족형태가 그 밖의 형태로 부모 중 한 분 또는 친인척과 사는 경우에 부모화 정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게다가 조사대상자의 아버지와 자녀관계의 질을 비교해 보면, 여성보다는 남성, 부모가 함께 거주하는 경우, 월 소득 수준이 높을 경우, 핵가족인 경우 아버지와 자녀관계의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와 자녀관계의 질을 비교해보면, 아버지와 결과와도 유사하게 부모가 함께 거주하는 경우가 높게 나타났으며, 아버지가 가사 일을 직접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 어머니와 자녀관계의 질이 높게 나타났다.

셋째,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부모-자녀관계가 낮은 저집단의 경우에 부모화 정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어머니와 자녀관계에서는 부모화 정도에 따라 관계의 질이 반비례하지 않으며, 부모화 정도가 중집단이나 저집단 외 고집단인 경우에는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넷째, 부모-자녀관계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중회귀분석한 결과

아버지와 자녀관계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거주하는 경우, 연령이 낮은 경우, 부모화 정도가 높은 경우 순으로 높은 영향력을 나타냈으며, 반면에 부모가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아버지와 자녀관계의 질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와 자녀관계의 질로는 가족구성원 내 질병이 있는 경우 어머니가 주로 간병의 역할에 전념하므로 어머니와 자녀관계의 질은 낮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목 차

## 논문 개요

I.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	1
2. 연구의 목적 .....	3
II. 이론적 배경 .....	5
1. 부모화의 개념 .....	5
1) 부모화의 정의 .....	5
2) 부모화의 유형 .....	6
3) 부모화의 원인 .....	8
4) 부모화된 자녀의 특성 .....	10
5) 부모화된 자녀의 개념에 관한 선행연구 .....	11

2. 부모-자녀관계의 배경 .....	12
1) 부모자녀관계 .....	12
2) 부모의 역할 .....	16
3. 부모화된 자녀와 가족 관계적 특성 .....	22
1) 부모화된 자녀와 가족 간의 관계 특성 .....	22
2) 부모화된 자녀의 관계적 특성 .....	22
3) 부모화된 자녀의 관계적 특성에 대한 선행연구 .....	23
Ⅲ. 연구모형 및 연구문제 .....	26
1. 연구모형 .....	26
2. 연구문제 .....	27
3. 용어의 정의 .....	28
Ⅳ. 연구방법 .....	29
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절차 .....	29
2. 조사도구의 구성과 내용 .....	33
3. 자료의 분석방법 .....	37

V. 결과 및 해석 .....	38
1. 부모화 정도와 부모-자녀관계의 질의 일반적 특성 .....	38
2.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부모화 정도와 부모-자녀관계의 질 차이 .....	39
3. 부모화 정도와 부모-자녀관계의 질 차이 .....	48
4. 부모-자녀관계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49
VI. 결론 및 논의 .....	52

**참 고 문 헌**

**ABSTRACT**

**부        록**

## 표 목 차

<표 1> 역할에 따른 부모화 유형 .....	6
<표 2> 돌봄의 지속성, 정도, 책임의 연속선상에 따른 부모화 유형 .....	7
<표 3> 부모역할에 대한 책임의식의 영역별 내용구성 .....	19
<표 4>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배경 .....	32
<표 5> 조사도구 구성 .....	33
<표 6> 부모화 정도와 부모자녀관계의 질 일반적 특성 .....	39
<표 7>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부모화 정도 차이 .....	42
<표 8>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부-자녀관계의 질 차이 .....	45
<표 9>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모-자녀관계의 질 차이 .....	47
<표 10> 부모화 정도와 부모-자녀관계의 질 차이 .....	49
<표 11> 부모-자녀관계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51

## 그 립 목 차

<그림 1> 대학생들의 부모화 정도가 부모-자녀관계의 질에 미치는 가설적 연구모형 .....	26
--	----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가족문화는 근세에 들어 서양문화의 도입으로 많은 변화를 거듭하고 있으며, 복잡 다양한 형태로 변화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조선시대를 거쳐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유교(儒敎)는 여전히 한국인들의 사고방식과 행동양식, 가족문화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 가족주의의 근간(根幹)이 되는 유교사회에서는 서양사회와 같이 개인을 사회구성의 기초단위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사회의 기초단위로 인식되는 사회였다. 따라서 개인의 존재는 개인으로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한 집안의 구성원으로만 그 가치가 인정되었고, 성공이나 성취도 개인보다는 가문(家門)의 영광으로 여겼다(백혜리, 1999).

이처럼 유교적 관점에서는 가족을 인간이 소속해 있는 여러 공동체 가운데 규모는 가장 작지만 실질적으로 자기존재의 근본(根本)이 되며, 사회적 인간관계의 모형(模型)이 된다고 보았다. 또한 가족문화는 발생 근거로서 그 중요성이 가중되었다.

이와 같은 사상적 토대에서는 집단적 생명이 온전히 보전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것이 '나'의 도리가 된다. 이를 위해 일차적으로는 신체를 훼손하지 않고 온전히 보전하는 도리를 지키는 것이요, 다음으로는 국가의 문화적 생명을 온전히 보전하는 도리인 충(忠)의 직분을 실천하는 것이다.

효 사상은 현대사회로 넘어오면서 그 의미가 많이 퇴색되어지고 있으며, 삶의 실천적 차원에도 그 형태가 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그 중요성은 한국사회에서 여전히 강조되어지고 있다. 사람들의 인식적 차원에서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최정혜, 1998). 유교적 관점에서, 한국사회는 남을 배려하고 부모를 생각하는 아이를 철든 아이로 보았으면, 때쓰지 않고 남을 배려하는 아이를 바람직한 아이로 보면서 아이에게 좋은 성인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사회는 바람직한 아동을 유교적 가치관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이해함으로써, 아동양육을 통해 일찍부터 아동의 성인화를 강조하고 있다(정태연 등, 2002).

한국사회에서 부모와 자녀관계는 상호의존적이며 서로 대단히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한국문화의 부모-자녀관계 특성을 고려해 볼 때, 그 부정적인 작용으로 실제 자녀의 부모화가 상당히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다(조은영, 2005).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부모화에 대한 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한국사회는 유교적 가치관의 영향으로 부모에 대한 자식의 의무를 크게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사회는 급속히 변화해오면서 다양한 유형의 가족들이 발생되어지고 있다. 가족원 중 한 명 이상이 질병을 앓고 있거나 부모가 사망한 가정, 부모가 현재 갈등상태이거나 융합관계인 가정, 부모가 별거 및 이혼한 가정, 재혼가정 등의 가족을 포함한다. 이와 같은 가정 내 부모와 자녀의 세대 간 경계가 무너진 상태에서 부부 간의 갈등과 위기가 자녀에게 전이되는 경우, 상황에 따라 약자는 자녀와 연합<sup>1)</sup>을 하여 강자에 맞서는 가족관계를 유지하

게 되는데, 이럴 경우 자녀는 약자의 보호자 역할을 하게 되고 자녀는 그로 인한 의무감과 책임감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조은영, 2006a).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모화된 자녀들의 가족형태를 이해하고, 부모화 정도가 부모-자녀관계의 질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 2. 연구의 목적

자녀들은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 심리·사회적 적응양식을 습득하게 되며 사회화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따라서 부모와의 상호관계의 경험의 질적 측면은 자녀의 성격형성이나 지적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사회적 관계에서의 성공 유무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어질 수가 있다.

이러한 부모-자녀관계는 집에서 부모에게 자녀의 도리를 다 하듯, 사회적으로 확대되어 궁극적으로는 사회와 국가에도 같은 도리를 다하는 것이 이상적인 인간의 성숙이며, 성취라고 볼 수 있다. 한국적 성숙의 개념인 '철들다'에 관한 연구(김효창, 손영미, 박정열, 최상진, 2000)의 결과를 보면, '타인배려'와 '자기절제'가 '독립심'이라는 범주보다 우선하는 '철들었음'의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배려에 수반되는 자기 절제가 잘 훈련된 사람이 가족 내 뿐만 아니라 사회와 국가에서도 성숙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이장주, 2003).

---

1) 가족 내 두 구성원 간의 불안한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또 다른 한 명의 가족원을 개입시켜 세 사람 간 상호작용 관계를 형성한다.

자녀가 너무 어린 나이에 부모를 보살피는 행동을 발달시키면 이후 성인기 대인관계에서 타인을 강박적으로 보살피는 행동을 할 수 있다. 부모화된 자녀(parentified child: Boszormenyi-Nagy & Spark, 1973) 혹은 부모화(parentification)의 문제가 심각할 수 있다(Bowlby, 1973).

강박적으로 부모를 배려하는 자녀의 행동이 피상적으로는 적응적이고 긍정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심리학자들과 가족학자들은 이들이 실제 내면적으로 어떠한 심리적 경험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강박적 배려심은 비록 단기적으로 가족 스트레스를 줄일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가족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에너지를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심각한 정신건강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Davies, 2002).

이러한 문제를 바탕으로 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갖는다.

첫째, 대학생이 지각하고 있는 부모화 정도와 부모-자녀관계의 질은 어떠한지 알아본다.

둘째, 사회인구학적 변인(성별, 연령, 부모의 결혼상태, 월 소득 수준, 종교, 출생순위, 부모학력, 질병유무와 질병유무자, 가사수행자, 가족형태)에 따라 부모화 정도와 부모-자녀관계의 질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비교한다.

셋째, 부모화 정도와 부모-자녀관계의 질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다.

넷째, 부모-자녀관계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어떤 것이 있는지 분석한다.

## Ⅱ. 이론적 배경

### 1. 부모화의 개념과 특성

부모화는 어린 시절 수용, 이해 및 지지를 받고 싶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할 때 발생할 수 있다(Boszomenyi-Nagy & Spark, 1973). 또한, 부모화는 부모의 과도한 욕구가 자녀에게 전이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즉, 부모가 대리 만족을 느끼기 위해 아이를 과대평가하고 과도한 수행을 요구할 경우에 부모화가 생길 수 있다(Jurkovic, Jess, & Goglia, 1991). 뿐만 아니라, 자녀가 아픈 부모를 돌보지 않았을 때 느끼는 강한 죄의식을 회피하기 위해 자녀는 부모의 역할을 수용하기도 한다고 한다(Bowlby, 1980).

#### 1) 부모화의 정의

부모화된 자녀(Parentified child)란 어린 나이에 부모를 보살피는 행동을 발달시킨 자녀 혹은 부모화(Parentification)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역할이 전이되어 왜곡된 상태라 정의 내릴 수 있다(Nagy & Spark, 1973).

부모화된 자녀는 정서적·행동적으로 자신의 유년기적 발달단계에 필요한 요구와 행동을 억압하면서 도구적 및 정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가족 구성원들의 안녕을 책임짐으로써, 그들의 애착 대상이 되기 쉽다(Byng-Hall, 2002). 부모화된 자녀가 보살피는 대상은 형제자매에서부터 부모에 이르기까지

지 매우 다양하며, 부모역할, 친구역할, 배우자역할, 동반자역할 등을 하는 것이며, 이 역할들이 장기간 내면화되어 자연스럽게 하는 행동을 말한다 (Chase, 1999; Jurkovic, 1997; Brock & Barnard, 1998).

## 2) 부모화의 유형

Jurkovic(1997)은 부모화의 역할 수행의 성격에 따라서 <표 1>과 같이 도구적 부모화, 정서적 부모화, 관계윤리적 불공평으로 유형이 구분된다.

**<표 1> 역할에 따른 부모화 유형**

도구적 부모화	가족이 도구적으로 유지되고 지탱되기 위해 필수적이고 구체적인 기능적 작업에 대한 책무를 떠맡도록 강요받은 것 (정서적·행동적으로 어린 나이에 아기 돌보기, 시장보기, 요리하기, 병든 가족 간호하기, 돈벌어오기 등)
정서적 부모화	아동이 가족의 사회적·정서적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것 (가족들을 보호하고, 절친한 친구, 동료, 동반자 같은 역할을 하거나, 가족의 갈등 중재, 지지와 양육, 위안 주기 등)
관계윤리적 불공평	가족 내 책임을 나눠서 맡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 (가족들이 각자의 능력과 자원, 부담 그리고 의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공정한 관계와 신뢰를 촉진하는 방식)

한편, 부모화 행동의 각기 다른 분류들을 구분하는 경계선이 언제나 뚜렷이 드러나 보이는 것은 아니다. 도구적 부모화라고 해서 심리적·표현적 구성요인이 없는 것은 아니며, 정서적 부모화 역시 물리적 기능만큼 보이지

않을지라도 보살핌의 외현적인 행동발현이다. 정서적인 보살핌 활동들도 역시 도구적인 특성들을 가질 수 있다(Jurkovic, 1997).

이러한 역할에 따른 구분과는 다르게 부모화를 돌봄의 지속성, 정도, 책임의 연속선상에 따라 파괴적 부모화, 상황적응적 부모화, 비부모화 세 가지 유형으로 범주화 된다(표 2참고). 이 유형의 부모화에서 가장 부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모화는 파괴적 부모화이다(Jurkovic, 1997).

**<표 2> 돌봄의 지속성, 정도, 책임의 연속선상에 따른 부모화 유형**

파괴적 부모화	발달단계에서 부적절하며 과도하게 외형적으로 표현적·도구적 책무를 떠안고 있으며 관계윤리적으로 불공평한 상태.
상황적응적 부모화	보살핌 행동이 외형적으로 볼 때 표현적·도구적이고 과도한 상황에 있지만, 적응적인 부모화 아동들은 대체로 보살핌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이들이 지는 책임도 상당부분 가족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당시에만 부가되는 일시적인 것. 장시간 책임이 부여된다 하더라도 그들이 부모화의 역할을 내면화되지는 않음.
비부모화	부모화 되지 않은 상태를 말하여, 부모가 지나칠 정도로 아동의 욕구를 모두 충족시킬 때 아동자신은 할 일이 없게 된 상태의 유아화까지 포함.

파괴적 부모화는 알코올 가정 뿐 아니라 빈곤가정, 일중독이나 맞벌이가정, 한부모가정, 재결합가정, 이혼이나 별거가정, 아동이 많은 가정, 질병이 있거나 장애인가정, 사회적 관계가 없는 가정, 아동학대나 무시를 하는 가정

에서 더 자주 발생된다. 파괴적 부모화 과정은 어린 나이에 아동들이 가까운 사람을 상실하거나, 고생스러운 생활의 연속일 때 우울해지며, 생활이 긴장될 때 스트레스를 받고 스트레스가 내면화되면서 진행된다(Jurkovic, 1997).

본 연구에서 부모화는 파괴적 부모화 측면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 3) 부모화의 원인

선행연구들을 통하여 부모화의 원인을 살펴보면, 맥락적 가족치료 이론에서 파괴적인 부모화는 가족들 사이의 윤리적인 불균형이 원인이라고 말한다. 부모화는 정서적·행동적으로 어린 자녀가 부모나 형제·자매를 대상으로 나이에 맞지 않은 부모역할, 배우자역할, 친구역할, 동반자역할을 장기간 하게 될 때 파괴적 부모화가 발생된다. 파괴적 부모화는 어린 나이에 아동들이 가까운 사람을 상실하거나, 고생스러운 생활의 연속일 때 우울해지며, 생활이 긴장될 때 스트레스를 받고 스트레스가 내면화되면서 진행된다. 부모화의 발생요인은 개인 심리적인 요인, 가정 환경적인 요인, 사회 역사적인 요인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Jurkovic, 1997).

첫째, 개인 심리내적 요인은 개인의 기질이다. 기질이 대인관계에서 극도로 민감하고 내성적이고 수줍음이 많은 아동은 가족들의 필요에 과도하게 반응한다. 이 아동들은 부모의 강한 요구에 자신들의 관심거리와 이슈들이 무시 받는다. 이처럼 자녀의 요구는 무시되고 부모는 자녀의 의존심과 충성심을 착취하려고 할 때 자녀들은 심리적인 압박감을 느끼게 되며, 자신에게 필요한 다른 측면의 발달과업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부모화 현상이 발생

한다(Session & Wayne, 1986).

둘째, 부모화의 직접적인 요인은 대부분 가정환경에 있다. 아동들의 관계 윤리적 불균형은 이들이 처해있는 보다 큰 사회·문화적인 맥락을 포함하여 언제나 또 다른 정서적 특성들과 관련이 있는데 우선 가정 안에서 보면 윤리적인 불균형이 부모화의 가장 큰 원인이 된다. 부모가 자녀를 돌보지 못하여 자녀가 부모나 형제·자매를 돌보게 됨으로써 부모화가 발생한다. 아동기나 청소년기에 부모화 된 사람은 성인이 되었을 때 그 자녀들에게 자신이 이루지 못한 꿈이나 일을 자녀가 달성해주기를 기대한다. 이러한 기대의 대상인 자녀는 어린 시절에 부모로부터 수용, 이해, 지지를 받지 못하고 가족의 기대에 대한 충성심으로 인하여 부모화 현상을 나타내는데 이러한 현상은 세대를 지나갈수록 더 심해진다(Goldenberg, 2000; 김용태, 2001).

마지막으로, Bronfenbrenner(1979)의 주장으로는 양육자를 포함하여 가족, 또래집단, 학교 등 직접적인 환경(미시체계)과 이러한 환경들 간의 교류들(중간체계)과 양육자는 아니지만 아동의 직접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에 위싸고 있는 부모의 사회적 네트워크라든가 부모의 직장 등과 같은, 공식적/비공식적인 여타 사회적 구조들(외체계), 그리고 공식적으로는 성문법, 규례, 조항 등에 명시되어 있고 비공식적으로는 이데올로기나 관습이나 사회구성원들의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체계 등의 일상생활 속에서 드러나는 문화 혹은 하부문화의 일반적인 패턴들(거시체계)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네가지를 주장하였다. 이렇게 사회·환경적인 측면에서의 요인은 사회와 부모화 문제가 징후와 관련한 집합차원이 아니라 그 안에 포함된 정서적 과정의 차원에서 인식되어야 한다(윤해례, 2003)는 것이다.

#### 4) 부모화된 자녀의 특성

부모화된 자녀들은 형제나 가까운 사람을 간섭하고 신체적으로 억압하는 등 성인처럼 행동을 한다. 가정에서는 정서적·육체적으로 약해진 부모를 보호하거나 위기에 빠진 부모에 대한 정신적인 개입, 형제경쟁, 근친상간 등의 부작용을 나타내는 등 정서적·행동적으로 부적응현상을 보인다(김유숙, 2002). 이들은 어려운 상황에서 개인 심리내적으로 충돌이 생길 때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을 하거나 형제나 가까운 사람에 대하여 간섭을 하거나, 신체적인 억압을 함으로써 가까운 사람들과 갈등을 한다(Session & Wayne, 1986). 가정과 사회에서 남달리 강한 책임감을 갖는 이들은 중요한 대상과의 관계형성이 자연스럽지 않다(Wells & Jones, 2000). 더욱 심각한 영향은 자율성 및 개성이 상실된다는 데 있다(Goglia, Jurkovic, Burt & Burge-Callaway, 1992). 부모화된 자녀들은 학업수행에서도 어려움을 겪는다. 청소년기는 물론 성인이 되어서는 사회부적응 현상을 나타낸다(Wells & Jones, 2000). 여러 가지 증상을 나타내는 이들은 부모화 역할로부터 영원히 분화되지 않은 채 남아있는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게 되며, 부모화의 장기적 영향은 정서적, 암묵적으로 나타날 경우 부모와의 분리로 나타난다(Jurkovic, 1997; James & Thomas, 1999). 청소년기 또는 성인기에 있어서 정서·행동의 특징은 피학증과 자아도취, 인지적인 정신이상, 정체성 혼란, 낮은 자존감, 방어적인 분열, 수치심, 우울, 비행, 충동성, 분노와 오만, 지나친 순종, 어른스러운 태도, 기대이상의 높은 성적이거나 기대이하의 낮은 성적, 완벽주의, 사회적 고립, 또래 문제에 지나친 관여, 신체화증상, 피로, 열

중, 만성적인 걱정, 약물남용, 기타 등의 문제가 나타난다(Jurkovic, 1997). 이러한 자녀들의 부모화는 정상적인 자아발달을 하지 못하여 성인이 된 후의 부적응 현상으로 거짓자아, 방어적 태도, 권위적인 보습을 나타내며 가까운 사람들과 부적절한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관계가 나빠지기도 한다. 성인의 부적응 행동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배우자와 자녀 또한 가족 내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 5) 부모화된 자녀의 개념에 관한 선행연구

부모화는 어떤 자녀가 가족 내에서 부모나 배우자의 역할을 대신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부모의 권한이 자녀에게 분배되는 것은 대가족, 편부모가족, 맞벌이 가족에게 있어서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부모화된 아이는 체계가 잘 기능하지 못하는 가족에서 자신의 나이에 걸맞지 않게 지나친 책임감, 능력, 자율성 등을 발전시킬 수가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한 쪽의 부모가 적절한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부모의 대용물로 부적절한 역할수행을 하는 경우가 많다. 부모의 역할을 대신 수행하는 자녀는 정서적·지적·신체적으로는 부모의 역할을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역할이나 책임감을 수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는 대부분 자신들에게 기대되는 역할이 그 자녀가 아이로서 가지고 있는 욕구와 서로 상충될 수 있으며, 이러한 요구는 그 자녀가 가진 능력으로는 달성할 수 없을 때도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게 되며 아이가 달성해야 할 다른 측면의 발달과업은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위험성을 가진다.

책임지는 아이들(Black, 1982), 짐을 떠맡은 아이들(Bying-Hall, 2002), 일중독 아이들(Robinson, 2000), 그리고 쫓기는 아이들(Elkind, 1981)이라는 이름의 자녀들에 대한 연구에서 부모화된 자녀는 경쟁적이며 성취 지향적인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적응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었다.

동시에 이러한 연구들은 “과도하게 기능하는 아이들”에 관한 연구(Chase, 1999)와 함께 부모화된 자녀들이 감당해야 할 책임감만큼이나 많은 스트레스와 긴장을 경험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 **2. 부모-자녀 관계의 배경**

### **1) 부모-자녀관계**

#### **(1) 부모-자녀관계의 정의**

부모-자녀관계는 인간이 맺게 되는 최초의 관계이며, 가장 기본이 되는 관계로 인간은 이 관계를 통하여 성장하고 발달하게 된다.

아동은 주로 부모를 통하여 환경에 적응하는 것을 학습하며, 부모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자기 역할을 인식하고 어른들의 생활양식 및 행동양식을 모방함으로써 사회규범에 맞는 행동을 학습하게 된다(오성심, 이종승, 1982). 그러므로 개인의 성장과정에서 가족들과 상호작용, 그 중에서 부모-자녀관계를 어떻게 경험하였는가는 아동의 성격 형성이나 지적 발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이라 할 수 있다(Bronfenbrenner, 1975;

Medinnus, 1967; Skeels, 1966). 예컨대 부모-자녀간의 관계가 바람직하면 자녀의 정서적 성장발달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만, 부모-자녀관계가 좋지 않을 경우 즉 부모가 자녀의 의견을 무시할수록, 부모와의 접촉이 적을수록, 부모가 덜 헌신적일수록 문제행동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다시 말해 부모-자녀관계는 자녀의 심리적 특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부모-자녀와의 초기 경험이 아동기의 대인관계 및 적응양식을 비롯한 성격형성 전반에 매우 큰 영향을 주고, 아동의 주된 애착 인물과의 경험이 아동의 또래관계를 비롯한 대인관계나 자기 효능감, 친근감 등 개인의 신념형성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대인관계의 만족을 유지 내지 발전시키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고은정, 1997).

Sears(1961)는 부모 개인의 인성에 차이가 생기는 것은 부모의 양육태도가 각기 다르기 때문이며, 그러므로 아동의 모든 행동은 그가 어떻게 키워졌느냐하는 부모의 양육방법의 결과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므로 부모의 양육태도는 부모-자녀관계의 질을 결정하고, 자녀의 인지적, 정서적, 성격적 측면의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 **(2) 부모-자녀관계의 특징**

부모-자녀관계를 상호작용 측면에서 보면, 부모-자녀관계는 미분화된 비이원적 관계이며, 부모-자녀 양측의 요구와 지각에 의한 공생적 관계라고 보았다. 부모-자녀관계의 비이원성이란 부모와 자녀의 내적 또는 체험적 세계에 어떠한 경계도 존재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김재은, 1974; 김은아, 1997 재인용).

이러한 부모-자녀관계의 특징을 김재은(19974)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첫째, 부모-자녀관계는 유전인자에 의한 생물적 연결의 관계이다.

둘째, 부모-자녀관계는 자녀의 출생이후 부모의 사망까지 계속되는 영속적으로 운명적인 공동관계이다.

셋째, 부모 편에서는 자녀란 사회화의 최우선적인 대상이며, 자녀 편에서는 부모란 최초로 갖게 되는 사회적 경험과 동일시의 대상이며 또한 참조의 모델이란 점에서 이 관계는 교육적이고도 문화적인 관계이다.

넷째, 부모-자녀관계는 애정과 신뢰, 보호와 의존, 권위와 존경 등의 관계로 융화되어 일체감을 갖게 하는 애정적 관계이며 모든 이익에 앞서서 고려되어지는 관계이다. 또한 합리적 타산적 관계가 아닌 비합리적이고 비타산적인 관계이다.

### **(3) 부모-자녀관계의 선행연구**

부모-자녀관계는 1910년 이래 Freud에 의해 체계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하여 과학적 연구의 중요성이 인식되어졌으며, 자녀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학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연구되기 시작하였다. Freud(1910)는 초기 경험이 인간의 일생을 좌우한다고 보았는데 요람에서의 경험이 잠재 의식화되어 후일 행동을 좌우하는 원동력을 이루기 때문에 아동의 성격은 주로 어렸을 때 부모와의 상호작용에서 비롯된다고 하였다.

부모-자녀관계는 부모와 자녀 사이에 존재하는 복잡한 상호작용을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 태내에서 시작되어 가정을 통한 인간관계로 이어지고, 특히

사회생활에 영향을 준다(이광자, 1998).

Collins & Read(1990)의 연구에서는 자녀들이 부모를 애정적이고 수용적이라고 지각할수록 거부당하거나 사랑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 불안 수준이 낮은 반면에 부모가 거부적이고 무관심하다고 지각하는 자녀들은 부정적인 자아상과 타인에 대한 부정적인 지각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익애적이고 과보호적인 가정의 자녀는 신경질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며, 비사회성 및 정서적인 양극성을 나타내고, 거부적이고 방임적인 가정에서는 수동적, 의존적, 순종적인 성격 유형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또한 민주적 가정에서 성장한 자녀들은 활동적이고 진취적이며, 통솔력이나 창의력 등의 태도가 현저하다고 하였다(Baldwin, 1995; 김충기, 1986, 재인용).

최인재(2006)의 '한국형 부모-자녀관계 척도(Parent-Child Relationship Instrument :PRI)연구에서 보면, 한국문화에서의 부모-자녀관계에서는 서구적 의미의 독립성과 자율성보다는 부모-자녀 간의 일체감을 바탕으로 한 '심정교류'와 '측은지정'이 발달되어있다. 그리고 기존 서구의 부모-자녀관계 척도에서는 돌봄과 통제라는 차원에서 부모-자녀관계를 이해해왔으나, 문화적 관련 변인인 헌신, 희생, 측은한 마음 등의 문화적 특징을 구성요인으로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국내에서는 특수가족형태의 부모-자녀관계 형성 또는 질에 대한 선행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연구된 '한국형 부모-자녀관계(PRI)'를 자녀들에게 실시함으로써 부모화된 자녀의 부모-자녀관계의 질을 알아본다.

## 2) 부모역할

### (1) '효'개념에서 본 부모 역할

자식에 대한 애착과 정리(情理)에 근거한 부모로서의 본무(本務)가 의자(義慈)이고, 자식은 부모의 애정과 은혜지감(恩惠之感)에 대해 자연발생적인 효도(孝道)를 하는 것이다. 부모 역할로서의 부의모자(父義母慈), 즉 자정(慈情)은 종족보존의 본능이므로 자정(慈情)없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부모자녀 관계에서 효성(孝誠)은 장려하지 않으면 없어지기 쉽다. 그렇기 때문에 자정(慈情)에 대해서는 등한시하고 효도(孝道)에 대해서는 늘 강조하여 왔다.

한편 전통적인 부모역할 중 아버지의 자녀에 대한 바른 태도는 엄하고 친함이고, 어머니가 그 자녀를 대하는 올바른 방식은 자비로움이다. 그래서 아버지를 엄친(嚴親)이라 하고 어머니를 자당(慈堂)이라고 하였다. 부모의 이러한 역할이 전통적인 한국가정의 자녀교육에서 부모의 양육행동 원리가 되어 온 것이다(고충수, 1989).

### (2) 변화하는 부모 역할

19세기까지의 부모역할은 효과적인 부모역할에 대한 관심보다 자녀의 생존을 위한 양육 제공자로서의 역할이 강조되었다. 따라서 부모의 역할은 엄격한 처벌을 통한 교육, 자녀의 신체와 자신에 대한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왔다. 이후 20세기에 들어와 행동주의자들은 자녀들은 백지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부모역할은 적절한 보상과 처벌을 통해 좋은 습관을 가르치는 것이

라고 주장하였다.

20세기 중반의 Piaget와 인성론자들의 등장은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가져와 부모는 단순히 자녀를 만족시켜 주는 사람이 아니라 발달의 촉진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Piaget는 삶의 경험에 대한 복잡한 지적 체계를 형성하기 위하여 아동의 자발적인 행동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부모의 역할은 자녀의 발달을 위해 적절한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인성론자들은 인간 유기체가 충분히 성숙하기 위해서 환경적 자극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Hamner & Turner, 2001).

가족 내의 사회화 과정을 살펴볼 때, 가족이 동적인 발달상태에 있는 개인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에 주목한다면 부모와 자녀 사이의 ‘발달적 상호작용’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개념에서 가족이란 발달과정에서 서로 다른 구성원에게 영향을 주고 상호작용 하는 인성의 체계라고 설명한다. 즉, 부모는 자녀는 각자의 발달단계에서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데 부모는 생산성 대 자아 침체의 심리사회적 단계로 진입하여 ‘자녀에 대한 신뢰와 양육’이라는 심리사회적인 욕구를 갖게 되는 한편, 자녀는 타인에 대한 신뢰를 배우는 발달적 시기에 속하여 ‘신뢰성 획득과 타인 신뢰’의 심리사회적 욕구를 가질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부모의 욕구와 자녀의 욕구 사이에는 직접적인 상호작용과의 일치가 존재한다(Bigner, 2002).

부모와 자녀 간에 발달단계나 욕구가 일치되는 것은 영아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호관계 속에 있는 개인의 생활을 통하여 계속되는 것이다. 아동이 발달단계를 거쳐 올라감에 따라 아동의 욕구와 이러한 욕구에 대한 반

응은 변화하고 부모들의 자녀 양육 방법에 영향을 미친다. 부모들은 성장하고 발달하는 아동과의 상호작용으로부터 아동의 발달수준에 따라 그들의 접근방법을 변화시켜야 함을 배우게 된다. 부모의 입장에서 이러한 방법은 아동들에게 여러 방면에서 영향을 끼친다. 아동은 부모의 생산성을 발달시키는 감정을 도와주거나 제지시키고, 부모는 아동이 각 발달단계에서 도전을 받을 때 도와주거나 제지시키는 지속적인 상호작용적인 순서에 따라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다(이은화, 이경우, 1991).

### **(3) 부모역할에 대한 책임의식에 따른 선행연구**

Nye(1976)는 부모의 역할을 자녀의 사회화 역할(socialization role)과 자녀 양육 역할(childcare role)에 대한 것으로 크게 나누고 그 구체적 내용으로 적절한 의생활과 식생활제공,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도록 도와주는 것, 옳고 그른 것에 대한 판단력을 심어주는 것, 책임감을 길러주는 것, 학교 공부를 도와주는 것, 자녀를 훈육하는 것, 청결 상태를 돌봐주는 것, 따뜻한 애정을 보이는 것, 두려움이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것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방은령, 1981 재인용).

Gilbert & Hanson(1983)도 Nye와 비슷한 견해를 갖고 있으나 이들은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이론을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부모역할에 대한 책임의식을 크게 교육적인 면과 기본적인 욕구를 해결해주는 일, 가족 및 사회와 자녀와의 관계를 돌봐주는 일에 관한 것으로 분류하고, 그 밑에 13개의 하위영역을 두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표 3>과 같다.

**<표 3> 부모역할에 대한 책임의식의 영역별 내용구성**

영역		내용
교육	인지발달	부모는 자녀의 학습상황을 돌봐 주어야하며 교육적이고 문화적인 활동들을 제공
	정서	부모는 자녀에게 늘 애정을 가지고 대하며 자녀가 자신의 감정과 성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갈등을 스스로 극복할 수 있도록 이끔.
	사회성	부모는 자녀가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공동생활에서의 규칙을 알려주며 정정당당하게 생활할 줄 아는 태도를 심어줌.
	사회적 가치관	부모는 자녀가 도덕적인 삶과 정의가 무엇인지 등 성장하면서 진실을 추구할 수 있도록 이끔.
기본적인 욕구	신체성장	부모는 자녀의 건강한 신체발달을 위하여 운동의 중요성을 자녀에게 인식시키고 함께 참여.
	위생상태	부모는 자녀의 청결상태를 점검하여 위생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돌봄. (이 닦는 것, 목욕, 의복, 환경관리 등)
	생활능력	부모는 자녀에게 응급처치, 화재시의 처신, 조리, 구매, 수선하는 것 등 응급시에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 등을 가르침.
	건강관리	부모는 자녀의 건강상태를 돌봐주어야 하며 손자녀의 건강을 정기적으로 검진하고 문제가 있으면 전문가와 의논을 하고 신속히 대처.
	물리적 환경	부모는 자녀의 의식주 생활 즉 교육적이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
	정서적 욕구	부모는 자녀와 대화시간을 충분히 가져 자녀의 정서적인 갈등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자녀가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줌.
사회와 자녀관계	보호 관리	부모는 어린 자녀를 등·하교 및 잠자리를 돌봐주고, 방과 후 공부방 등 여러 활동에도 참여.
	사회생활	부모는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해 교사 및 사회복지사 등과 의논하고, 또 사회생활에서 민주시민의 역할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자녀를 가르침.
	가족공동체의식	자녀에게 가족생활의 중요성을 깨닫도록 가르치고, 부모 및 가족에 관해 올바른 의식을 갖도록 지도.

<표 3>과 같이 13개영역의 역할들을 자녀양육에 따른 부모의 역할로서 얼마나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지가 부모역할에 대한 책임의식을 측정하는 기준이 된다(Gilbert, Hanson, 1983).

#### (4) 부모역할과 자녀의 적응

부모역할은 자녀의 사회화 과정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환경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인으로 알려져 왔다. 부모역할은 자녀의 성격, 정서, 자아개념, 가치관 등 심리사회적 발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정원식, 1975), 역기능적인 부모역할은 자녀의 다양한 문제행동 및 정서적인 문제와 연관되어진다(Sato et al., 1998). 부모역할은 자녀의 성격, 행동, 정서, 인지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허묘연 외, 2001). 긍정적인 부모역할은 자녀의 협동심, 책임감, 적응력, 성취감, 낮은 공격성, 타인의 감정에 대한 민감성과 사회적 능력과 관련이 있다(Ainsworth & Bell, 1974).

Fauber(1990)는 효율적인 부모역할을 하는 부모의 자녀는 자녀에게 일관적인 훈육방법을 사용한다고 하였다. 거친 훈육은 자녀의 공격성에 직접적으로 연결되고 반사회적인 행동을 수행하게 하고, 신체적인 처벌과 같은 거친 훈육은 신체적인 공격을 불일치를 해결하는 합법적인 전략으로 학습 받게 된다고 하였다. 부모가 자녀를 잘 돌보지 않고 과도하게 보호할 경우 자녀는 공격성이나 비행 등의 외현화<sup>2)</sup> 문제를 보인다고 하였다. 또한 적대적

2) 감정이나 행동의 적절한 억제가 결여되어 표출되는 것으로써 공격성, 충동성, 비행 등이 포함된다. 외현화 문제는 타인에게 해를 끼치거나 공격적인 행동, 싸움, 비행 등 과소통제 된 행동 유형으로 분류된다(Achenbach & Edelbrock, 1991).

이고 처벌적이고 수치감을 조장하고, 거부적이거나 과도한 통제를 하는 부모역할이 자녀의 행동장애와 비행, 공격성에 결정적인 위험요인임이 밝혀졌고 부모의 긍정적인 참여태도나 감독은 행동장애와 비행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Rey & Plapp, 1990).

무관심한 부모에게서 양육된 자녀는 사회적 능력감, 학업성취도, 심리적 적응 측면에서 낮은 효과를 보이며, 특히 무관심한 부모가 아동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더욱 증대되어진다고 밝혔다(Baumrind, 1991). 적대적이고 거부적인 부모는 부모와 자녀 사이의 정서적 유대를 방해한다(Patterson 외, 1989). 게다가 Baumrind(1991)는 부모가 자녀에게 감독과 수용을 잘하고 자율성을 주는 경우 자녀의 학업 성취율이 높다고 보았다. Bronstein 등(1996)과 DuBois 등(1994)은 부모의 관심과 부모역할이 학교생활에서의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과정으로 검증하였다. 부모의 관심은 자녀가 인지하는 능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줌으로써 학업 수행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제시하였다.

### **3. 부모화된 자녀와 가족 관계적 특성**

#### **1) 부모화된 자녀와 가족 간의 관계 특성**

부모화된 자녀들을 가족의 영웅으로 개념화한 연구(Robbinson & Rhoden, 1998)에서 이들은 가정의 불균형을 조절하여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는 가족의 핵심 인물 역할을 했다. 그러나 가족 역동이 특정 자녀에게 성인과 같은 보호자의 역할을 장기간 지속적으로 요구한다면, 극단적인 무력감, 과도한 충성심과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Farber & Jenne, 1963; Gath, 1973).

부모에게 지나치게 개입하고 있어서(Cole & Woolger, 1989), 부모로부터 낮은 수준의 심리적 독립과 부모에 대한 높은 수준의 정서적 관계를 보인다(Campbell, Adams & Dobson, 1984; Fullinwider-Bush & Jacobvitz, 1993). 또한 부모의 과도한 욕구가 자녀에게 전이되어 자녀에게 과도한 수행을 요구할 경우, 자녀는 불안해서 강박적으로 일에 매달리거나 몰입해야 함으로써 실존적 불안, 허무감, 소외감을 경험하기도 한다(Jurkovic, et al., 1991).

#### **2) 부모화된 자녀의 관계적 특성**

타인을 강박적으로 보살피는 사람들은 그들과 친밀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경향이 있으나, 항상 타인을 배려하는 입장에 처하고 그러한 배려를 받는 입장에는 있지 못하다(Bowlby, 1973). 타인을 보살피는 행동과 균형을 이루지 못한 채 강박적으로 타인을 보살피는 행동에 몰두할 때, 상호보완성이

깨짐으로써 자신의 욕구를 스스로 소외시키는 결과가 초래되어진다. 궁극적으로, 이들은 불공평하다는 느낌을 경험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행동과 자신의 욕구 사이에 존재하는 모순 속에서 실존적인 관계를 경험하지 못한다(Chase, 1997).

부모화된 자녀들은 종종 우울과 자기 비난 및 낮은 자아 존중감 등을 경험하고(Byng-Hall, 2002), 수치심과 과도한 죄의식, 피학적 성격, 자기애적 성격, 그리고 정신적 분열을 보이기도 한다(Wells & Jones, 2000). 뿐만 아니라, 부모화된 자녀들은 불필요한 걱정, 사회적 소외감, 그리고 신체적 장애를 경험하고(Byng-Hall, 2002), 인간관계에서 서로 주고받는 것이 불공평함을 호소하며(Jurkovic et al., 2001), 초기 애착 및 경계선 혼란(Chase, 1999)과 같은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

### **3) 부모화 자녀의 관계적 특성에 대한 선행연구**

부모화에 관한 선행연구로 신구연(2003)은 부모화의 경험이 대학생의 병리적 의존에 미치는 영향을 부모화의 하위요인에 따라 알아보고, 그 결과 부모화 경험이 병리적 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수치심 경향성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였다. 윤해례(2003)의 연구는 한국사회의 알코올 중독자 자녀와 비알코올 중독자 자녀의 부모화 수준에 대한 경험적 자료를 보고하였다. 조은영(2004a)의 연구는 부모화된 자녀의 심리적 특성을 개인차원, 부모와의 애착관계, 가족관계에서 탐색하였다. 그리고 문비(2006)의 연구에서는 부모화 경험이 대인관계 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전혜경(2006)

의 연구는 자녀의 부모화 및 부자유친성정(父子有親性情)<sup>3)</sup>과 대학생들의 생활적응과의 관계를 비교한 바 있다.

그러나 상기된 바와 같이 부모화의 부정적인 영향들에 대한 위험성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에서 그동안 부모화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지 못했던 이유에 대해 조은영(2004a)은 다음의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첫째, 부모화된 자녀의 부모 및 타인을 배려하는 행동은 표면적으로 보았을 때 착하고, 바람직하고, 어른스런 행동으로 간주되기 쉬우며, 부모의 욕구에 따라 여러 가지 수행을 잘 해내는 아이들은 심지어 능력 있는 만능인으로 강화 받고 있는 실정으로 이와 같은 부모화의 외적 적응성을 이유로 들었다.

둘째, 효를 중시하는 한국문화를 들었다. 부모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고, 부름에 즉시 응하고, 부모를 욕되지 않게 하고 부모의 감정을 미리 알아서 배려하는 마음으로 오랫동안 미덕으로 여겨온 유교문화권의 한국사회(최재석1982)에서 부모로부터의 분리는 자칫 불효처럼 느껴지기 쉽다. 또한 부모의 뜻을 거스르는 것은 오랜 기간 부모의 정서를 보살펴왔던 부모화된 자녀의 입장에서 죄책감을 유발하는 등 매우 어려운 일임에 틀림없다.

셋째, 지금까지 발달 심리학적 연구에서 선택해왔던 환원론적 연구방법론은 인간 행동의 변인을 검증할 수 있는 것에서만 찾으려고 했지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변화하는 인간의 마음을 탐색하지는 못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

3) 부모와 자녀 간의 자애(慈愛)와 효(孝)를 바탕으로 한 감정·의식 동일체적 친애관계를 말한다. 이러한 관계에서는 부모나 자녀가 자기들의 삶에서 각각 경험하는 기쁨이나 슬픔 등의 정서경험이 대리(代理)만족이나 대리슬픔이 아니라 곧 자신의 느낌처럼 동일하게 경험된다고 볼 수 있다(최상진, 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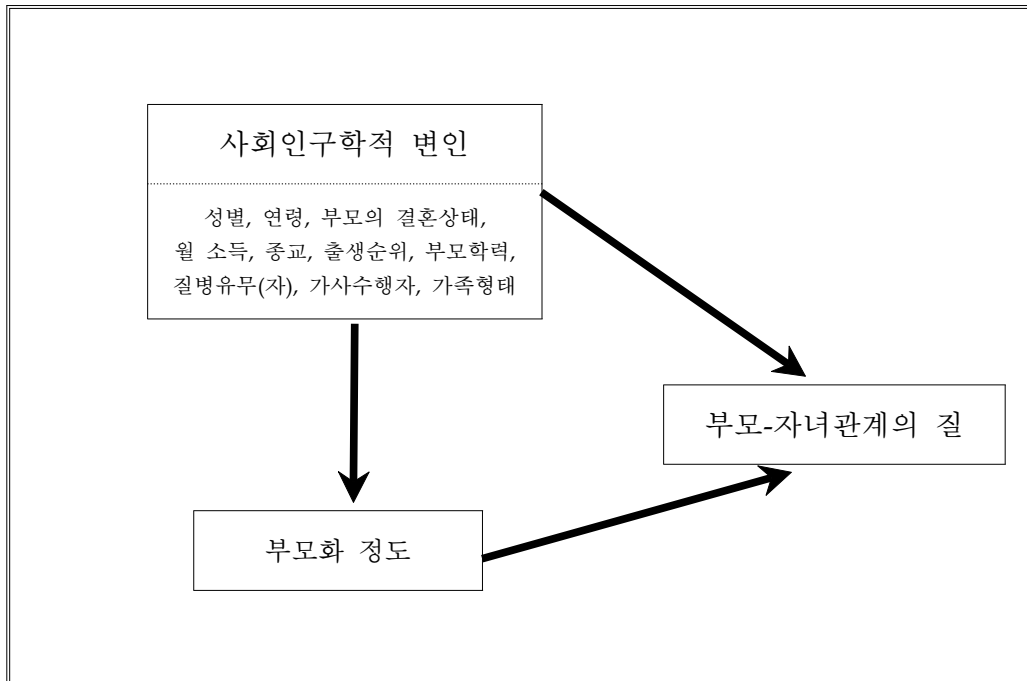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보았을 때는 매우 적응적이고 바람직한 행동을 보이는 부모화된 자녀들의 보이지 않는 내면의 어려움은 간과될 수밖에 없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문비, 2006).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통해 한국사회에서 대학생들의 부모화 정도를 알아보고, 부모화된 자녀들의 부모-자녀관계의 질은 어떠한지 알아본다.

### Ⅲ. 연구모형 및 연구문제

####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오늘날 대학생들의 부모화 정도가 부모-자녀관계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하였다. 가설적 연구모형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 <그림 1>와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 2. 연구문제

본 연구는 부모화 정도가 부모-자녀관계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부모화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그 기초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부모화된 자녀들이 성인이 된 이후에도 부모-자녀관계의 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위해 설명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화 정도와 부모-자녀관계의 질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 사회인구학적 변인(성별, 연령, 부모의 결혼상태, 월 소득, 종교, 출생순위, 부모학력, 질병유무와 질병유무자, 가사수행자, 가족형태)에 따라 부모화 정도와 부모-자녀관계의 질은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3 > 부모화 정도와 부모-자녀관계의 질에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4 > 부모-자녀관계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어떤 것이 있는가?

### 3. 용어의 정의

#### 1) 부모화(Parentification)

자녀가 집안일에서 많은 책임을 떠맡을 때, 부모화되고 결과적으로 가족 내에서 부모가 된다.

자녀는 과도하게 성인의 책임을 떠맡고, 부모와 자녀의 역할이 바뀌게 되어 부모의 정서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한다. 이러한 반전된 역할을 부모화 현상으로 조작적 정의를 내린다.

#### 2) 부모-자녀관계(Parent Child Relationship)

부모-자녀관계는 인간이 맺게 되는 최초의 관계이며, 가장 기본이 되는 관계로 인간은 이 관계를 통하여 성장하고 발달하게 된다. 여기서 부모-자녀관계는 혈연적 관계로 이루어진 지속적이고 상호보완적이며, 부모와 자녀 간의 밀접한 유대관계를 토대로 일심동체(一心同體)적 의식을 강조하고 있는 관계로 조작적 정의를 내린다.

## IV. 연구방법

### 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절차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서울 및 수도권에서 생활하고 있는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 선정 기준은 발달 과업이 측면에서 아동기는 부모에 의한 보호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시기이며 청소년기는 자율 및 독립성의 증가로 자아 중심적이 되며 부모에 대한 갈등이 심화되는 시기이나(송명자, 1998), 오늘날 한국의 청소년들은 대학입시 준비로 가족에 대한 책임감에서 자연스럽게 제외되어 자녀와 부모간의 역동적인 관계가 비교적 적게 발생한다. 반면에 대학생들은 성인으로서 부모로부터의 독립 욕구 및 타인과의 친밀성 욕구가 증가하는 시기(Erikson, 1968)이며,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증가하면서 부모-자녀관계에서 자녀의 역할이 증가하기 쉽고 이 과정에서 그들의 주된 행동양식이 표면으로 드러나기 쉽다. 자녀의 부모화된 행동은 확장된 인간관계에서도 주로 타인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맞춰주는 관계로 나타나기 쉬운데 대학생은 새로운 인간관계를 통해 이러한 자신의 행동양식을 쉽게 발견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이유를 바탕으로 하여 대학생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본 조사 실시에 앞서 조사도구의 적절성과 신뢰성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2007년 9월 4일부터 9월 14일까지 예비조사가 진행되었으며, 예비조사 설문지는 총 45(남학생:18, 여학생:27)부가 수집되었다.

구조화된 설문조사를 통한 예비조사 결과 신뢰도 검증과 영역별 타당도가 인정되지 않은 문항은 관련 전공분야 교수의 평가와 조언을 받아 본 조사에서 수정 및 제외되었다.

본 조사는 2007년 9월 18일에서 10월 31일에 걸쳐서 실시되었으며, 조사 대상자의 표집방법은 유의 추출법(purposive sampling)으로 실시되었다.

자료의 수집은 성신여자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아주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원광대학교 등에 협조를 받아 직접 실시하였다. 일부 연구자를 통해 조사대상의 조건에 해당되고 직접 응답이 가능한 사람과 온라인을 통한 파일 전송을 통해 구조화된 설문 조사가 실시되었다.

본 연구의 설문지는 모두 500부가 배부되어 약 450부가 회수되었으며, 그 중 내용이 부실 기재되거나 무응답한 자료 등 본 연구에 적합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 설문지는 제외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 최종자료로 분석된 설문지는 총 370부였다.

본 연구에서 고려된 변수는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 성별, 연령, 부모의 결혼상태, 월 소득 수준, 종교, 출생순위, 아버지의 학력, 어머니의 학력, 가족구성원의 질병유무, 질병유무자, 집안 내의 가사수행자, 가족형태 등 총 13변수로 설정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배경을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조사대상인 대학생 성별의 경우 남자 114명(31.0%), 여성 254명(69.0%)이었다. 연령은 만 18세에서 20세까지가 208명(56.5%), 만 21세에서 24세까지 126명(34.2%), 만 25세 이상은 34명(9.2%)로 나타났다.

부모님의 결혼상태를 보면 별거 중인 경우는 6명(1.6%), 이혼하셨다는 경우는 13명(3.5%), 재혼하셨다는 경우는 7명(1.9%)이며, 현재 함께 거주하신다

고 응답한 경우는 342명(92.8%)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소득을 살펴보면, 200만원 이하가 15.2%(N=56), 300만원 이하가 28.8%(N=106), 500만원 이하가 39.7%(146), 500만원 이상은 16.3%(N=60)로 나타나고 있다. 대체로 대학생 자녀를 둔 가정을 전제로 하여 조사대상자의 경제상태는 중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종교의 경우 57.4%(N=214)가 종교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41.8%(N=154)가 종교를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종교가 있는 경우 기독교가 31.8%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출생순위를 살펴보면, 막내인 경우 115명(31.3%), 그 외 차남/차녀의 경우가 39명(10.6%)으로 장남/장녀의 경우가 214명(58.2%)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부의 학력에서 고졸이 45.1%(N=166), 대졸이 36.4%(N=134), 대학원이상이 9.2%(N=34)로 나타났으며, 모의 학력에서는 고졸이 62.0%(N=228), 대졸이 20.4%(N=75), 대학원이상이 2.4%(N=9)로 부의 학력보다 다소 낮은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집안 내의 질병 유무자에 관한 응답으로 가족구성원 중 질병이 있는 경우가 24.5%(N=90)로 나타났으며, 그 중 아버지가 10.1%(N=37)%, 어머니가 9.2%(N=34), 조부모님이 3.5%(N=12), 형제·자매가 1.9%(N=7)로 나타났다. 집안의 가사수행자로는 어머니가 87.0%(N=320)이며, 그 외의 경우가 13.0% (N=48)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가족형태를 살펴보면, 부모와 본인이 사는 경우가 88.9%(N=327)로 가장 많았으며, 조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는 9.6%(N=28), 그 밖의 형태로 부모 중 한 분 또는 친인척과 사는 경우가 3.5%(N=13)로 나타났다.

**<표 4>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배경**

(N=370)

변 수	구 분	N	%
성 별	남성	114	31.0
	여성	254	69.0
연 령	만 18~20세	208	56.5
	만 21~24세	126	34.2
	만 25세 이상	34	9.2
결혼상태 (부모)	동거	342	92.9
	별거	6	1.6
	이혼	13	3.5
	재혼	7	1.9
소득	200만원 이하	56	15.2
	200~300만원	106	28.8
	300~500만원	146	39.7
	500만원 이상	60	16.3
종교	가톨릭	54	14.7
	기독교	117	31.8
	불교	33	9.0
	기타	10	2.7
	무교	154	41.8
출생순위	장남/장녀	214	58.2
	막내	115	31.3
	그 외 순위	39	10.6
부 학력	중졸 미만	24	6.5
	중졸	10	2.7
	고졸	166	45.1
	대졸	134	36.4
	대학원 이상	34	9.2
모 학력	중졸 미만	28	7.6
	중졸	28	7.6
	고졸	228	62.0
	대졸	75	20.4
	대학원 이상	9	2.4
질병유무	예	90	24.5
	아니오	278	75.5
질병 유무자	부(아버지)	37	10.1
	모(어머니)	34	9.2
	조부모(할머니/할아버지)	12	3.5
	형제, 자매	7	1.9
가사 수행자	어머니	320	87.0
	아버지	6	1.6
	가사도우미	10	2.7
	형제자매	6	1.6
	기타	26	7.1
가족형태	핵가족	327	88.9
	확대가족	28	7.6
	기타	13	3.5
합 계		370	100.0

\* 무응답으로 인하여 합계가 다를 수 있음.

## 2. 조사도구의 구성과 내용

연구를 위하여 사용된 조사도구는 사회인구학적 변인(성별, 연령, 부모의 결혼상태, 월 소득, 종교, 출생순위, 부모학력, 질병유무와 질병유무자, 가사수행자, 가족형태)에 따라 부모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과 부모자녀 관계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 그리고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의 척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표5 참고).

**<표 5> 조사도구 구성**

조사도구	조사도구 구성	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s $\alpha$	척도
부모화 정도 (PQ-A)	도구적 역할	1,3,4,13,31,40,41,42	8	.786	명목
	정서적 역할	2,7,20,22,24,26,30,35,38	9		
	관계윤리적 불공평	5,9,10,12,14,15,16,18,19,21,23,28,29,32,34,36,37,39	18		
부모-자녀관계의 질 (PRI)	정서안정	10,16,18,19,32,36,39	7	.942	서열
	친밀	2,11,12,31,33,40,41	7		
	효	22,26,29,35,42	5		
	존경	1,25,28,44	4		

## 1) 부모화 성인용 척도(Parentified-children Questionnaire: PQ-A)

부모화된 자녀를 확인하기 위해 Sessions & Jurkovic(1996)의 부모화 성인용 척도(Parentified children Questionnaire: PQ-A)를 번역한 한국어판(조은영, 2004a)을 사용하였다.

PQ-A는 이 분야의 이론 Boszormeny-Nagy & Spark(1973), Karpel(1976)의 연구에 근거하여 합리적 추론 및 부모화 병력을 가진 내담자들의 임상적 경험(Goglia, Jurkovic, Burt & Burge-Callaway, 1992)을 통해 추출되었으며, 몇몇 문항은 이들 내담자들의 축어록을 인용하여 구성되었다. 그 외의 문항들은 Goglia(1982)가 이보다 앞서 부모화를 측정하려는 시도에서 개발한 검사에서 추출하여 진위형으로 변환시킨 것들이다. PQ-A는 아동일 때 원가족 내에서 자녀와 부모 간의 양육의 책임정도를 측정하는 도구이다(Carroll & Robinson, 2000).

이 척도 구성으로 집안일을 했는지, 가족들 돌보기를 했는지, 집안의 돈 문제를 걱정했는지 등을 묻는 도구적 역할 8문항과 가족들에 대한 문제가 많아서 걱정을 하는지, 가족들이 어려울 때 자신이 어른처럼 중간역할을 하거나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자신의 탓으로 여기는 정서적 역할 10문항, 그리고 가족들 중에서 자신만 소외되었고, 상호관계가 편안하지 않고, 자기만 희생되며 가족 안에서 책임이 형평에 맞지 않았는지를 묻는 관계윤리적 불공평에 해당되는 18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하위요인들 간에 대한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아 PQ-A를 단일화시켜 점수화하였다.

이 척도는 총 42문항으로 '예'나 '아니오'로 응답하며 역코딩 문항을 역점수화한 다음 예라고 답한 문항 수의 합이 부모화 정도를 나타낸다. 응답한 결과의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화 정도가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행연구에서 내적 일관성 계수(Cronbach'  $\alpha$ )는 .68이었으나, 본 연구에서 내적 일관성 계수는 .78이었다. 역코딩된 문항은 1, 3, 8, 12, 14, 19, 20, 21, 29, 31, 32, 34, 36, 37, 39, 40이다.

## 2) 한국형 부모-자녀관계 척도(Parent-Child Relationship Instrument; PRI)

부모 자녀관계의 관계성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한국청소년개발원 최인재(2006)의 한국형 부모-자녀관계 척도(Parent-Child Relationship Instrument; PRI)를 수정, 보완 한 것을 사용하였으며, 질문지는 Likert척도에 맞춰 '전혀 아니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척도 상에 평정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응답한 결과의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와의 관계에서 유대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조사에 앞서, 문항 총점 간 상관계수가 .30이하인 문항과 문항평균이 2.00이하이거나 4.50이상인 문항 그리고 표준편차가 .80이하인 문항을 탈락의 기준으로 제거하였다. 그 결과 총23개의 문항이 최종적으로 선정되었다.

요인에 대한 판단은 부모님에 대한 척도 모두 4개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요인 수를 4개로 지정한 후, 재분석을 실시하여 문항의 요인부하계수가 .30이상이며, 공통성이 높은 문항을 기준으로 문항을 채택하였다. 요인부하계수가 .30이하 혹은 .30이상이라 하더라도 다른 개념의 요인과 높

게 관련된 문항들은 삭제하였다. 그 결과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척도 모두 23개의 문항을 최종문항으로 선정할 수 있었다.

요인분석 결과, 요인1의 문항들은 '어머니/아버지는 나의 고민을 잘 들어주시고 이해해주신다.', '어머니/아버지는 나를 위해 무슨 일이든지 하신다.', '어머니/아버지는 내가 힘들거나 짜증나는 일이 있을 때 잘 보듬어 주신다.' 등의 7개의 문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요인 1에 대한 요인 명을 '정서안정'이라 명명하였다.

요인 2는 '어머니/아버지를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이 든다.', '어머니/아버지와 함께 있는 시간이 좋다.', '어머니/아버지는 나를 가장 잘 아는 친한 친구 같은 분이다.' 등의 7개의 문항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요인명을 '친밀'로 명명하였다.

또한 요인 3은 '나를 위해 끝없이 희생하시는 어머니/아버지의 모습을 보면 측은한 마음이 든다.', '어머니/아버지에게 효도를 해야겠다.', '어머니/아버지는 나를 위해 희생하신다.' 등의 5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효'라 명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요인 4의 경우 '어머니/아버지는 나의 든든한 후원자시다.', '어머니/아버지는 존경스럽고 본받고 싶은 분이다.', '어머니/아버지는 힘들거나 어려운 일이 있어도 언제나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신다.' 등의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존경'이라 명명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각각의 하위요인들 간의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아 단일화시켜 점수화 하였다. 이와 같이 단일화 시켜 점수화한 '한국형 부모-자녀관계 척도'의 전체 Cronbach's  $\alpha$  값은 .942로 나타났다.

### 3. 자료의 분석방법

연구문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방법을 적용하였다. 연구문제 분석에 앞서 부모화 척도와 부모-자녀관계의 질 척도의 하위요인들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 위 두 척도 모두 단일화하여 시행하였다.

< 연구문제 1 >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화 정도와 부모자녀관계 질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를 이용하여 전반적인 경향을 알아보았다.

< 연구문제 2 > 사회인구학적 변인(성별, 연령, 부모의 결혼상태, 월 소득, 종교, 출생순위, 부모학력, 질병유무와 질병유무자, 가사수행자, 가족형태)에 따른 대학생 자녀들의 부모화 정도와 부모-자녀관계의 질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기술통계, t 검증, ANOVA를 사용하고 사후검증방법으로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실시하였다.

< 연구문제 3 > 부모화 정도에 따른 부모-자녀관계의 질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 검증, ANOVA를 사용하고 사후검증방법으로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시행하였다.

< 연구문제 4 > 부모-자녀관계의 질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성별, 결혼상태, 종교, 출생순위, 질병유무자, 가사수행자, 가족형태는 가변수화(dummy variables)하여 적용하였다.

이상의 자료 분석은 SPSS WIN 14.0 프로그램에서 실시되었다.

## V. 결과 및 해석

### 1. 부모화 정도와 부모-자녀관계의 질의 일반적 특성

분석에 앞서 <연구문제 3>과 같이 부모화 정도에 따른 부모자녀관계의 질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부모화 정도를 고집단, 중집단, 저집단으로 나누어 분류하였다. 부모화 정도의 고집단, 중집단, 저집단은  $M \pm SD$ 를 통해 계산되었다. 위 분류작업을 거쳐, 분류된 하위요인별 부모화 정도와 부모자녀관계의 질의 일반적인 경향을 <표 6>에 제시하였다.

부모화 정도 전체 값은 21.54( $SD=4.895$ )로 나타났으며, 부모화 정도 고집단에서는 49명(13.31%)이 29.80( $SD=2.010$ )값을 나타냈으며, 중집단에서는 235명(63.85%)이 22.10( $SD=2.470$ ), 저집단에서는 84명(22.82%)이 15.13( $SD=1.925$ )값을 나타냈다.

부모자녀관계의 질은 전체 88.17( $SD=14.665$ )값을 나타냈으며, 아버지의 경우에는 84.02( $SD=18.427$ ), 어머니의 경우에는 92.33( $SD=15.144$ )로 비교적 어머니의 경우, 자녀와 관계의 질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부모화 정도와 부모자녀관계의 질 일반적 특성**

	N	M	5점 환산	SD	%
부모화 정도	368	21.54		4.895	100
고	49	29.80		2.010	13.31
중	235	22.10		2.470	63.85
저	84	15.13		1.925	22.82
부모자녀관계의 질	368	88.17	3.83	14.665	100
부	368	84.02	3.65	18.427	100
모	368	92.33	4.01	15.144	100

## 2.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부모화 정도와 부모-자녀관계의 질 차이

### 2-1.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부모화 정도의 차이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부모화 정도의 유의미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test와 ANOVA를 통해 분석해 본 결과는 <표 7>과 같다.

성별, 월 소득 수준, 가족구성원 내 질병유무와 질병유무자, 가족형태에 따라 부모화 정도의 평균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성별에 따른 부모화 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 $t=-3.848$ ,  $p<0.001$ ) 남성의 부모화 정도는 20.10점( $SD=4.19$ ), 여성의 부모화 정도는 22.18점( $SD=5.05$ )이다. 즉 여학생이 느끼고 있는 부모화 정도가 남학생이 느끼고 있는 부모화 정도보다 높다고 보인다.

월 소득 수준에 따른 부모화 정도의 평균을 보면 200만원 이하의 경우 부

모화 정도 평균점수가 23.75점(SD=5.04), 2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의 경우는 21.60점(SD=4.80), 3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의 경우는 20.96점(SD=4.85), 500만원 이상은 20.75점(SD=4.49)였다. 월 소득 수준에 따른 부모화 정도 평균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F=5.190$ ,  $p<0.01$ ), 집단간의 차이를 알아보려고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월 소득 수준이 200만원~500만원까지와 500만원 이상이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500만원 미만인 집단이 500만원 이상인 집단보다 부모화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구성원 내 질병유무에 따른 부모화 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t=2.592$ ,  $p<0.05$ ), 가족구성원 내 질병이 있는 경우의 부모화 정도 평균은 22.69점(SD=4.629), 가족구성원 내 질병이 없는 경우의 부모화 정도 평균은 21.18점(SD=4.931)으로 나타났으며, 가족 구성원 내 질병이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부모화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비(2006)연구에서도 이와 같이 부모가 질환이나 장애로 인해 자녀가 아픈 부모를 대신해야 하는 가정의 자녀는 도구적·정서적 부모화와 관계윤리적 불공평 세 영역 모두에서 그렇지 않은 자녀에 비해 부모화 정도 점수가 높게 나타나 다양한 분야와 연계된 개입과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질병유무자에 따른 부모화 정도의 평균을 보면 아버지가 질병이 있는 경우는 22.62점(SD=4.728)이며, 어머니인 경우 22.61점(SD=7.277), 조부모인 경우 24.69점(SD=5.677), 형제·자매인 경우 22.43점(SD=3.645)였다. 가족구성원 내 질병유무자에 따른 부모화정도 평균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F=2.525$ ,  $p<0.05$ ).

가족형태에 따른 부모화 정도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F=3.703$ ,  $p<0.05$ ). 핵가족의 경우는 21.31점( $SD=4.808$ ), 확대가족의 경우 22.75점( $SD=5.008$ ), 그 외 다른 가족형태의 경우는 24.54점( $SD=5.811$ )로 나타났다. 여기서 그 밖의 형태로 부모 중 한 분 또는 친인척과 사는 경우 등이 있었다. 구체적으로 핵가족 집단보다는 확대가족이나 기타가족이 부모화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검증 결과 핵가족과 그 외 다른 가족형태의 경우의 평균 부모화 정도는 서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부모화 정도 차이

변 인	분류	부모화 정도		
		M	SD	D
성 별	남성	20.10	4.19	
	여성	22.18	5.05	
	t		-3.848***	
연 령	만 18~20세	21.61	4.72	A
	만 21~24세	21.85	5.15	B
	만 25세 이상	19.91	4.78	B
	F		2.168	
결혼상태 (부모)	동거	21.33	4.76	A
	별거	24.83	8.70	A
	이혼	23.69	5.00	A
	재혼	24.71	5.37	A
	F		2.981	
소득	200만원 이하	23.75	5.04	A
	200~300만원	21.60	4.80	A
	300~500만원	20.96	4.85	A
	500만원 이상	20.75	4.49	B
	F		5.190**	
종교	가톨릭	20.41	4.16	A
	기독교	22.37	5.07	A
	불교	21.64	4.63	A
	기타	22.60	6.43	A
	무교	21.21	4.88	A
	F		1.874	
출생순위	장남/장녀	21.65	5.28	A
	막내	20.96	4.15	AB
	그 외 순위	22.59	4.56	B
	F		1.779	
부 학력	중졸 미만	22.50	4.107	A
	중졸	19.00	3.887	AB
	고졸	21.66	5.050	AB
	대졸	21.42	4.976	AB
	대학원 이상	21.47	4.534	AB
	F		0.949	
모 학력	중졸 미만	22.25	5.420	A
	중졸	21.32	4.208	AB
	고졸	21.60	4.966	AB
	대졸	20.83	4.566	AB
	대학원 이상	24.22	5.718	AB
	F		1.247	
질병유무	예	22.69	4.629	
	아니오	21.18	4.931	
	t		2.592*	
질병 유무자	부(아버지)	22.62	4.728	A
	모(어머니)	22.21	7.277	A
	조부모(할머니/할아버지)	24.69	5.677	A
	형제, 자매	22.43	3.645	A
	F		2.525*	
가사 수행자	어머니	21.30	4.910	A
	아버지	20.17	5.419	A
	가사도우미	22.60	3.565	A
	형제자매	23.00	5.215	A
	기타	24.00	4.454	A
	F		2.232	
가족형태	핵가족	21.31	4.808	A
	확대가족	22.75	5.008	AB
	기타	24.54	5.811	B
	F		3.703*	

\*p<0.05 \*\*p<0.01 \*\*\*p<0.001

## 2-2.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부모-자녀관계의 질 차이

### 1)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부-자녀관계의 질 차이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아버지와 자녀관계의 질의 유의미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test와 ANOVA를 통해 분석해 본 결과는 <표 8>와 같다.

성별, 부모의 결혼상태, 월 소득 수준, 가족형태에 따라 아버지와 자녀관계의 질의 평균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아버지와 자녀관계의 질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t=3.227$ ,  $p<0.01$ ), 남성의 아버지와 자녀관계의 질의 차이는 88.59점( $SD=16.869$ ), 여성의 아버지와 자녀관계의 질의 차이는 81.97점( $SD=18.758$ )이다. 즉, 남학생이 지각한 아버지와 관계의 질은 여학생이 지각한 아버지와 관계의 질보다 높다고 보인다.

부모의 결혼상태에 따른 아버지와 자녀관계의 질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고( $F=12.171$ ,  $p<0.001$ ), 부모가 함께 거주하는 경우의 평균점수는 85.41점( $SD=17.095$ ), 부모가 별거 중인 경우 53.50점( $SD=18.328$ ), 부모가 이혼한 경우 64.59점( $SD=27.189$ ), 그리고 부모가 재혼한 경우는 78.00점( $SD=22.554$ )로 나타났다. 부모가 함께 거주하는 경우 아버지와 자녀관계의 질이 높아진다고 판단할 수 있다.

월 소득 수준에 따른 아버지와 자녀관계의 질의 차이를 보면 200만원 이상의 경우 아버지와 자녀관계의 질 평균점수가 76.05점( $SD=22.023$ ), 2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의 경우는 84.34점( $SD=17.501$ ), 3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의 경우는 85.81점( $SD=17.659$ ), 500만원 이상은 86.53점( $SD=16.551$ )였다. 월 소득

수준에 따른 아버지와 자녀관계의 질 평균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F=4.452, p<0.01$ ) 집단 간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월 소득 수준이 200만원 이하와 200만원 이상일 경우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200만원 이상의 경우가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500만원 이상인 경우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가족형태에 따른 아버지와 자녀관계의 질의 차이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9.720, p<0.001$ ). 핵가족의 경우는 84.98점( $SD=17.589$ ), 확대가족의 경우 82.75점( $SD=19.285$ ), 그 외 다른 가족형태의 경우로는 62.62점( $SD=24.878$ )로 나타났으며, 여기서 그 밖의 형태로 부모 중 한 분 또는 친인척과 사는 경우 등이 있었다.

<표 8>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부-자녀관계의 질 차이

변인	분류	부-자녀관계의 질			
		M	5점 환산	SD	D
성별	남성	88.59	3.85	16.869	
	여성	81.97	3.56	18.758	
	t			3.227**	
연령	만 18~20세	84.86	3.68	17.160	A
	만 21~24세	84.10	3.65	19.479	A
	만 25세 이상	78.62	3.41	21.391	A
	F			1.682	
결혼상태 (부모)	동거	85.41	3.71	17.095	AB
	별거	53.50	2.32	18.328	C
	이혼	64.59	2.81	27.189	AC
	재혼	78.00	3.39	22.554	A
	F			12.171***	
소득	200만원 이하	76.05	3.30	22.023	A
	200~300만원	84.34	3.66	17.501	B
	300~500만원	85.81	3.73	17.659	B
	500만원 이상	86.53	3.76	16.551	B
	F			4.452**	
종교	가톨릭	85.33	3.71	14.737	A
	기독교	84.09	3.65	19.824	A
	불교	88.21	3.83	15.718	A
	기타	83.80	3.64	12.470	A
	무교	82.62	3.59	19.343	A
	F			.715	
출생순위	장남/장녀	83.82	3.64	18.089	A
	막내	85.14	3.70	19.133	A
	그 외 순위	81.82	3.55	18.389	A
	F			.501	
부 학력	중졸 미만	83.54	3.63	21.756	A
	중졸	85.50	3.71	10.298	A
	고졸	83.84	3.64	18.606	A
	대졸	84.79	3.68	18.397	A
	대학원 이상	81.74	3.55	17.717	A
	F			.211	
모 학력	중졸 미만	83.61	3.63	20.233	A
	중졸	86.50	3.76	21.086	A
	고졸	83.81	3.64	18.283	A
	대졸	83.44	3.62	17.668	A
	대학원 이상	87.78	3.81	16.761	A
	F			.248	
질병유무	예	81.68	3.55	20.518	
	아니오	84.76	3.68	17.700	
	t			-1.389	
질병 유무자	부(아버지)	77.54	3.37	22.069	A
	모(어머니)	82.53	3.58	19.956	A
	조부모(할머니/할아버지)	82.23	3.57	17.432	A
	형제, 자매	95.43	4.14	16.277	B
	F			2.069	
가사 수행자	어머니	84.07	3.65	18.144	A
	아버지	94.67	4.11	8.359	A
	가사도우미	87.70	3.81	9.007	A
	형제자매	92.83	4.03	16.726	A
	기타	77.46	3.36	24.267	A
	F			1.783	
가족형태	핵가족	84.98	3.69	17.589	A
	확대가족	82.75	3.59	19.285	A
	기타	62.62	2.72	24.878	B
	F			9.720***	

\*p<0.05 \*\*p<0.01 \*\*\*p<0.001

## 2)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모-자녀관계의 질 차이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어머니와 자녀관계의 질의 유의미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test와 ANOVA를 통해 분석해 본 결과는 <표 9>와 같다.

부모의 결혼상태, 집안 내 가사수행자에 따라 어머니와 자녀관계의 질의 평균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부모의 결혼상태에 따른 어머니와 자녀관계의 질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F=3.503, p<0.05$ ). 부모가 함께 거주하는 경우의 평균점수는 93.02점( $SD=14.353$ ), 부모가 별거 중인 경우 83.83점( $SD=14.851$ ), 부모가 이혼한 경우 83.31점( $SD=19.435$ ), 그리고 부모가 재혼한 경우는 82.29점( $SD=31.431$ )로 나타났다. 즉, 부모가 함께 살고계시는 경우 어머니와 자녀관계의 질이 더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집안 내 가사수행자에 따른 어머니와 자녀관계의 질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F=2.784, p<0.05$ ), 집안 내 가사수행자가 어머니인 경우의 평균점수는 92.65점( $SD=14.366$ ), 아버지인 경우 103.83점( $SD=6.210$ ), 가사도우미인 경우 89.90점( $SD=17.400$ ), 형제·자매인 경우는 99.00점( $SD=12.116$ ), 조부모 및 본인이 직접 한다는 의견으로는 85.12점( $SD=22.073$ )였다.

<표 9>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모-자녀관계의 질 차이

변 인	분류	모-자녀관계의 질			
		M	5점 환산	SD	D
성 별	남성	94.45	4.10	14.039	
	여성	91.37	3.17	15.548	
	t			1.806	
연 령	만 18~20세	91.46	3.97	15.286	A
	만 21~24세	93.06	4.04	14.926	A
	만 25세 이상	94.91	4.12	15.076	A
	F			.988	
결혼상태 (부모)	동거	93.02	4.04	14.353	A
	별거	83.83	3.64	14.851	A
	이혼	83.31	3.62	19.435	A
	재혼	82.29	3.57	31.431	A
	F			3.503 <sup>†</sup>	
소득	200만원 이하	92.93	4.04	14.110	A
	200~300만원	92.78	4.03	15.060	A
	300~500만원	92.42	4.01	14.999	A
	500만원 이상	90.72	3.94	16.768	A
	F			.288	
종교	가톨릭	92.06	4.00	13.853	A
	기독교	93.04	4.04	15.266	A
	불교	94.88	4.12	13.306	A
	기타	86.50	3.79	21.459	A
	무교	91.71	3.98	15.441	A
	F			.736	
출생순위	장남/장녀	91.41	3.97	15.079	A
	막내	93.97	4.08	15.351	A
	그 외 순위	92.49	4.02	14.852	A
	F			1.074	
부 학력	중졸 미만	89.79	3.90	14.252	A
	중졸	97.40	4.23	6.328	A
	고졸	93.77	4.07	14.126	A
	대졸	91.35	3.97	16.422	A
	대학원 이상	89.44	3.88	16.666	A
	F			1.275	
모 학력	중졸 미만	97.79	3.99	13.777	A
	중졸	98.71	4.29	9.977	A
	고졸	92.48	4.02	15.708	A
	대졸	89.85	3.90	14.926	A
	대학원 이상	90.89	3.95	16.684	A
	F			1.796	
질병유무	예	93.97	4.08	14.669	
	아니오	91.78	3.99	15.309	
	t			1.183	
질병 유무자	부(아버지)	92.38	4.01	15.254	A
	모(어머니)	96.24	4.18	16.120	A
	조부모(할머니/할아버지)	88.15	3.83	12.647	A
	형제, 자매	98.71	4.30	17.373	A
	F			1.189.549	
가사 수행자	어머니	92.65	4.02	14.366	AB
	아버지	103.83	4.51	6.210	A
	가사도우미	89.90	3.90	17.400	AB
	형제자매	99.00	4.30	12.116	AB
	기타	85.12	3.70	22.073	B
	F			2.784 <sup>†</sup>	
가족형태	핵가족	92.81	4.03	14.354	A
	확대가족	89.86	3.90	17.072	A
	기타	85.46	3.71	26.263	A
	F			1.884	

\* p<0.05 \*\* p<0.01 \*\*\* p<0.001

### 3. 부모화 정도에 따른 부모-자녀관계의 질 차이

<연구문제 1>에서 부모화 정도를 고·중·저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위 분류 작업을 거쳐, 각 하위요인별 부모화 정도에 따른 부모-자녀관계의 질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하위요인별 부모화 정도와 아버지와 자녀관계의 질과 어머니와 자녀관계의 질 각각의 유의미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ANOVA를 통해 분석해 본 결과는 <표 10>과 같다.

부모화 정도가 고집단 3.202점(SD=0.815)과 중집단 3.703점(SD=0.807)보다 저집단 3.7758점(SD=0.688)에서 아버지와 자녀관계의 질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F=9.362, p<0.001$ ). 조은영(2004a) 연구에서는 부모화 고집단의 자녀들은 아버지에 대한 적대감을 보고한 경우가 저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는데 이러한 경향은 아버지와의 적대적인 관계가 오히려 어머니와의 밀착을 이끌어 어머니를 보호하는 역할을 동기화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어머니와 자녀관계의 질에서 가장 높은 경우는 부모화 정도가 중집단인 경우 4.075점(SD=0.620)이며, 그 다음으로는 부모화 정도가 저집단인 경우 4.001점(SD=0.645)이며, 부모화 정도가 고집단의 경우 3.743점(SD=0.790)는 어머니와 자녀관계의 질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F=5.288, p<0.01$ ).

두 분석결과 모두 사후검증 결과에서 부모-자녀관계의 질 정도의 고집단과 저집단의 부모화 정도는 서로 유의미하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부모화 정도와 부모-자녀관계의 질 차이**

변 인	분류	아버지				어머니			
		M	5점환산	SD	D	M	5점환산	SD	D
부모화 정도	고	73.65	3.202	18.75	A	86.10	3.743	18.17	A
	중	85.17	3.703	18.56	B	93.73	4.075	14.26	B
	저	86.85	3.775	15.83	B	92.02	4.001	14.85	B
	F	9.632***				5.288**			

\*p<0.05 \*\*p<0.01 \*\*\*p<0.001

#### 4. 부모-자녀관계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부모화 정도 중 부모-자녀관계의 질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를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사용하여 분석했다.

부모-자녀관계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아버지와 어머니로 나누어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투입된 독립변수로는 부모화 정도, 성별, 연령, 부모의 결혼상태, 월 소득 수준, 종교, 조사대상자의 출생순위, 부의 학력, 모의 학력, 가족구

성원 내 질병유무, 질병유무자, 집안 내 가사수행자 그리고 가족형태이다.

아버지와 자녀관계의 질을 제시한 결과 <표 11>에 의하면 아버지와 자녀관계의 질과의 영향력은  $R^2=.339$ 이며 유의수준은 .01이하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을 나타내고 있고 설명력은 33.9%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는 부모화 정도, 연령, 가족구성원 내 질병유무자, 가족형태이다. 구체적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아버지와 자녀관계의 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첫째, 가족형태( $\beta=.271$ ,  $p<0.05$ )로써 부모와 자녀가 함께 거주하는 경우 아버지와 자녀관계의 질이 긍정적으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연령( $\beta=-.269$ ,  $p<0.05$ )로써 연령이 낮을수록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나타났다. 셋째, 부모화 정도( $\beta=-.254$ ,  $p<0.05$ )로써 부모화 정도가 높을수록 아버지와 자녀관계의 질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가족구성원 내 질병유무자( $\beta=-.234$ ,  $p<0.05$ )로써 부모가 질병이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아버지와 자녀관계의 질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와 자녀관계의 질과의 영향력은  $R^2=.181$ 이며 유의수준은 통계적으로 무의미한 값을 나타내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로는 가족구성원 내 질병유무( $\beta=-.247$ ,  $p<0.05$ )가 나타났다. 가족구성원 내 질병이 있는 경우 어머니와 자녀관계의 질은 낮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표 11>과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표 11> 부모-자녀관계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독립변수	부-자녀관계의 질		모-자녀관계의 질	
	B	표준화 회귀계수 ( $\beta$ )	B	표준화 회귀계수 ( $\beta$ )
부모화 정도	-1.122	-.254*	-4.77	-.149
성별 <sup>1)</sup>	-7.483	-.149	-.779	-.022
연령	-7.722	-.269*	.755	.037
결혼상태 (부모) <sup>2)</sup>	-10.493	-.128	2.402	.040
소득	4.474	.220	2.839	.194
종교 <sup>3)</sup>	-1.701	-.041	2.751	.092
출생순위 <sup>4)</sup>	-.228	-.006	.337	.011
부 학력	-.542	-.027	1.317	.090
모 학력	-.914	-.038	.850	.049
질병유무	-29.401	-.150	-34.836	-.247*
질병 유무자 <sup>5)</sup>	-11.507	-.234*	-.728	-.020
가사수행자	6.953	.115	7.716	.177
가족형태 <sup>6)</sup>	-13.886	.271*	-6.166	.167
F	3.039**		1.313	
R <sup>2</sup>	.339**		.181	

\* p<0.05 \*\* p<0.01 \*\*\* p<0.001

1) 성별: 남자=0, 여자=1

3) 종교: 있음=0, 없음=1

5) 질병유무자: 그 외=0, 부모=1

7) 가족형태: 그 외=0, 부모+자녀=1

2) 결혼상태: 함께살고 있음=0, 그 외=1

4) 출생순위: 장남/장녀=0, 그 외=1

6) 가사수행자: 어머니=0, 그 외=1

## VI. 결론 및 논의

한국사회에서 다양한 상황적인 이유로 부모가 자녀의 발달단계에 적절한 역할을 할 수 없을 경우, 자녀들은 오히려 그들이 가족구성원의 안녕감을 제공하는 동시에 가족체계를 유지시켜 준다는 근거로 하여, 이들이 부모에게 효를 행하는 것으로 인식이 되어지고 있다. 유교적 문화권 사회에서 이를 문제점으로 제기한 점에서 특히 주목받고 있다.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부모화 정도가 부모-자녀관계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부모화된 자녀에 대한 가족치료적 접근의 가족생활·가족복지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가족 상담의 개입 전략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총 380명의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여 진행하였고,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부모화 정도와 부모-자녀관계의 질에 관해서는 기술통계 및 t-test, ANOVA를 통해 분석하였다. 그리고 부모화 정도를 고·중·저로 분류하여, 부모-자녀관계의 질과의 차이를 비교분석하였다. 다음으로 부모-자녀관계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이에 대한 결과를 토대로 논의를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들이 지각하고 있는 부모화 정도와 부모-자녀관계 질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부모화 정도에서 중집단에 가장 높은 비율(63.85%)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부모-자녀관계의 질에서는 비교적 어머니의 경우, 자녀와 관계의 질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진아(2006)연구에서는 안정애착을 가진 어머니가 그렇지 않은 어머니들보다 궁

정적인 부모-자녀관계를 형성할 수 있으며, 공감능력이 높은 어머니들은 자녀에게 많은 지지를 보이며, 자녀와 친밀할 관계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둘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경향을 살펴본 결과 남성보다는 여성의 경우가 부모화 정도가 크게 나타났고, 월 소득 수준이 낮으며, 질병이 있는 경우, 그리고 가족형태가 그 밖의 형태로 부모 중 한 분 또는 친인척과 사는 경우에 부모화 정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게다가 조사대상자의 아버지와 자녀관계의 질을 비교해 보면, 여성보다는 남성, 부모가 함께 거주하는 경우, 월 소득 수준이 높을 경우, 핵가족인 경우 아버지와 자녀관계의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와 자녀관계의 질을 비교해보면, 아버지와 결과와도 유사하게 부모가 함께 거주하는 경우가 높게 나타났으며, 아버지가 가사일을 직접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 어머니와 자녀관계의 질이 높게 나타났다.

셋째,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부모화 정도가 낮은 저집단의 경우에 부모-자녀관계의 질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어머니와 자녀관계에서는 부모화 정도에 따라 자녀와 관계의 질이 반비례하지 않으며, 부모화 정도가 중집단이나 저집단 외 고집단인 경우에는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조은영(2004a)연구에서는 부모화 점수가 높은 집단일수록 가족에 대한 충성심이 높으나, 자아분화 정도는 낮게 나타났다. 이는 부모화된 자녀들이 부모 및 가족일에 더 개입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넷째, 부모-자녀관계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중회귀분석한 결과 아버지와 자녀관계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거주하는 경우, 연령이 낮은 경우, 부모화 정도가 높은 경우 순으로 높은 영향력을 나타냈으며, 반면에 부모가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아버지와 자녀관

계의 질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와 자녀관계의 질로는 가족구성원 내 질병이 있는 경우 어머니가 주로 간병의 역할에 전념하므로 어머니와 자녀관계의 질은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나타났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부모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번역되어진 한국판 척도(Parentification Questionnaire: PQ-A)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번역에 있어서 전문적인 검증이 다루어지지 않아 조사자들의 혼돈이 잦았다. 게다가 문항들의 개념이 한국사회의 특수한 문화적 맥락과 사회적 결정요인을 잘 반영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한국문화에서 자녀가 부모를 돌보고 배려한다는 것은 효를 행하는 것으로 인식하게 되며,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로 이를 장려한다. 자녀가 부모를 돌보고 배려하며,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한국사회의 상황에 맞는 표준화된 한국어판 PQ-A (Parentification Questionnaire)의 개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설문조사에 앞서, 연구대상자를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의 대학생으로 진행하였다. 그로인해, 대상자들의 경제적 수준 또한 중상층인 경우가 대다수였으며, 조사대상 집단에 여자대학교가 다수 포함되어, 성비비율에서 여대생이 약 2배 이상을 차지하는 비율차를 보였다.

셋째, 설문조사는 모두 자기 보고 형식에 의해 얻어진 자료이므로, 응답자들이 방어기제를 사용하거나, 사회적 바람직성에 따라 보고했을 수 있고, 또한 무작위 응답 등 불성실한 응답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추후연구에서는 부모화 정도 대상자를 추출하여 좀 더 심층적인 연구가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부모화 정도를 알아보는 척도(PQ-A)는 가족 전체 역동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중에서 한사람의 지각만 측정한다. 그러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가족구성원들이 함께 지속적인 가족생활교육 및 상담을 통해 부모화된 자녀들이 그와 같은 행동 특성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내적 두려움 및 부가적 이익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섯째, 발달적 관점에서의 부모화 연구는 인간 발달 과정에서 부모화가 인간의 사회 적응에 미치는 기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발달 단계에 따라 부모화 발달을 비롯하여, 인간의 탈부모화 노력 또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본 연구는 가족 내에서 행동이 배려적이고 사회적이고 적응적이어서 그동안 문제로 다루어지지 않았던 부모화된 자녀의 부모-자녀관계의 질을 탐색해 보고, 부모화된 자녀에게 있어서 부모-자녀관계의 질을 파악하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의 결과와 같이 부모화 정도가 부모-자녀관계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화된 자녀들은 한국사회에서 '철든 아이'로 인식되어지고 있다. 이에 부모화된 자녀들과 그들의 부모에 대한 가족치료적 접근의 가족생활·가족복지 교육 프로그램과 가족상담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 참 고 문 헌

- 강효숙(2004).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자녀관계와 자아존중감 및 또래관계. 숙명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고은정(1997). 애착유형에 따른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봉미(2005). 대리영육가정 조부모의 사회적 지지와 부모역할 책임에 대한 인식. 숙명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아(1997). 부모-자녀관계 및 아동의 기질과 형제관계, 숙명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재은(1974). 한국가족의 부모-자녀관계와 그 집단성격에 관한 심리학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충기·김정규(1986). 교육심리 및 생활지도. 서울: 학문사.
- 김태현, 임선영(2004). 가족이념, 생활교류가 부모자녀관계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중년세대와 성인세대를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 9(1), 85-109.
- 김혜진(2003). 부부갈등과 부부-자녀관계 및 아동의 학교적응간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나중혜(2005). 자녀의 발달단계에 맞는 새로운 부모역할 제안 : 변화하는 부모역할 개념과 수행을 중심으로. 한국생활과학회지, 14(2), 411-421.
- 문비(2006). 부모화 경험이 대인관계 문제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대

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수경(2005). 청소년의 부모-자녀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변인 : 부·모·자녀를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유화(2001). 대학생의 가족응집성 및 자아분화 수준과 대학생활적응도의 관계 연구. 서울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방은령(1986). 부모역할에 대한 책임의식 : 아버지와 어머니의 차이. 한국아동학회, 아동학회지, 7(2), pp. 33-53.
- 백혜리(1999). 현대 부모-자녀관계와 조선시대 부모-자녀관계의 관계. 유아교육연구, 19(2), pp. 59-76.
- 송지영(1992). 한국판 부모-자녀 결합 형태 검사 :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 신 경정신의학회, 31(5), pp. 979-992.
- 신주연(2003). 성장기의 부모화 경험이 대학생의 병리적 의존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성심·이종승(1982). 부모의 양육방식에 대한 아동의 지각과 정의적 특성에 관계. 서울 : 행동과학연구소.
- 오진아(2006) 어머니의 성인애착 및 공감능력에 따른 부모-자녀관계 연구. 숙명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옥선화, 성미애, 이재림, 이경희(2002). 빈곤여성 가장의 모-자녀관계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 가족관계 학회지, 7(3), pp. 55-78.
- 윤혜례(2003). 알코올중독자 자녀와 비알코올중독자 자녀의 부모화, 단국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광자(1998). 부모의 양육태도가 중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 는 영향. 서강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화, 이경우(1991). 부모교육입문. 서울 : 창지사.
- 이장주(2003). 부자유친성 척도의 제작과 타당화 연구. 중앙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현지(2004). 한국가족주의의 변화과정과 미래방향 : 유교적 가족관계관, 현대 가족위기의 대안인가. 한국유교학회, 20(0), pp. 97-119.
- 전혜경(2006). 자녀의 부모화 및 부자유친성정과 대학생활 적응간의 관계, 고려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옥분, 김광웅, 김동춘, 유가효, 윤종희, 정현희, 최경순, 최영희(1997). 전통 '효'개념에서 본 부모역할 인식과 자녀양육행동. 한국아동학회, 18(1), pp. 81-107.
- 정원식(1975). 인간과 교육. 서울 : 배영사.
- 정태연, 최상진, 김효창(2002). 아동과 어른 그리고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표상 : 성격적 관계적, 및 과업적 특성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8(2), pp. 51-76.
- 조은영, 정태연(2004). 자녀의 부모화와 관련된 심리적 특성들의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9(1), pp. 43-62.
- 조은영, 정태연(2005). 부모화된 자녀의 개인적 및 가족관계적 특성 : 자기보고 및 상담을 통한 질적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4), pp. 833-853.
- 최상진(2000). 한국인심리학. 서울 : 중앙대학교 출판부.
- 최상진, 김혜숙, 유승엽(1994). 부자유친성정과 자녀에 대한 영향력. 한국심

- 리학회 연차대회 학술발표 논문초록, pp. 65-82.
- 최연실(1996). 청소년 자녀기 가족의 가족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윤정(2004). 아버지의 문제음주와 청소년 자녀의 적응 : 부모역할과 부모와의 애착의 매개역할. 한국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pp. 589-610.
- 최인재(2005).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부모·자녀관계의 문화적 특징 : 부자유친 성정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4), pp. 1059-1076.
- 최인재(2006). 한국형 부모-자녀관계 척도개발 및 타당화 연구. 서울 : 한국청소년개발원.
- 최정혜(1998). 기혼자녀의 효 의식, 가족주의 및 부모 부양의식. 한국노년학, 18(2), pp. 47-63.
- 최희량(1998). 가족체계 유형에 따른 청소년의 대인문제성향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허묘연 외(2001). 청소년기 문제행동과 부모 양육행동에 관한 연구. 신경정신의학. 40(4), pp. 605-615.
- Achenbach, T. M. & Edelbrock, C. S. (1991). Manual for the Child Behavior Checklist 4-18 and 1991 Profile, Burlington, VT: University of Vermont, Department of Psychiatry.
- Ainsworth, M. D. S. (1989). Attachment beyond infancy. American Psychologist, 44. pp. 709-716.
- Baldwin, A. L. (1955). Socialization and the parent-child relationship.

Child Development, Vol. 19, pp. 127-136.

- Baumrind, D. (1991). The Influence of parenting style on adolescent competence and substance us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aa, pp. 56-95.
- Berman, W. H. & Sperling, M. B.(1991). Parental attachment and emotional distress in the transition to colleg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0, pp. 427-440.
- Black, C. (1979). Children of alcoholics. *Alcohol, Health and Research World*, 4(1), pp. 23-27.
- Black, C. (1982). *It will never happen to me*. Denver: M. A. C. Publications.
- Boszomenyi-Nagy I., & Spark, G. (1973). *Invisible loyalties: Reciprocity in intergenerational family therapy*. New York: Harper & Row.
- Bowen, M. (1976). *Theory in the practice of psychotherapy*. In P. J. Guerin, Jr. (Ed.), *Family therapy: Theory and practice*. New York: Gardner Press.
- Bowlby, J. (1973). *Separation: Anxiety and Anger*. Basic Book, New York.
- Bowlby, J. (1980). *Attachment and loss: Vol. 3. Loss, sadness, and depression*. New York: Basic Books.
- Bronfenbrenner, U. (1975).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in retrospect and prospect*. Paper present at the Conference on Ecological Factors in Human Development held by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the Study of Behavior Development.  
Guilford, England.

- Bronstein, P, Duncan, P, D'Ari, A, Pieniadz, J, Fitzgerald, M, Abrams, C. L, Frankowski, B, Franco, O, Hunt, C, Cha, S. Y. (1996). Family Relations. 45. pp. 415-426.
- Bying-Hall, J. (2002). Relieving parentified children's burdens in families with insecure attachment patterns. *Family Process*, 41(3), pp. 375-388.
- Campbell, E., Adams, G. R, & Dobson, W. R. (1984). Familial correlates of identity formation in late adolescence.: A study of the predictive utility of connectedness and individuality in family relation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3, pp. 509-525.
- Chase, N. D. (1999). An Overview of theory, research, and societal issues. In Chase, N. D.(1999). *Burdened children: Theory, Research, and treatment of parentification*. 3-33. sage.
- Cole, P., & Woolger, C. (1989). Incest survivors: The relation of their perceptions of their parents and their own parenting attitudes. *Child Abuse and Neglect*, 13, pp. 409-416.
- Collins, N. L. & Read, S. J. (1990). Adult attachment, working models and relationship quality in dating coup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pp. 644-663.
- Copans, S. (1989). The invisible family member: Children in families with

- alcohol abuse. In L. Combrinck-Graham(Ed.), Children in family contexts: Perspectives on treatment, pp. 277-298.
- Davies, P. T. (2002). Commentary: Conceptual links between Bying-Hall's theory parentification and the emotional security Hypothesis. *Family Peocess*. 41(3), pp. 551-555.
- DuBois, D. D, Felner, R. D., Meares, H & Krier, M.(1994). Prospective investigation of the effects of socioeconomic disadvantage, life stress, and social support on early adolescent adjustment.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3(3). pp. 511-522.
- Elkind, D. (1981). *The burried child: Growing up too fast, too soon*. Reading, MA: Addison-Wesley.
- Erikson, E, H.(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W. W. Norton.
- Faber, B., & Jenne, W. C. (1963). Family organization and parent-child communication: Parents and siblings of a retarded child.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28(7), pp. 3-78.
- Fauber, R, Forehand, R, Thomas, A. M & Wierson, M. (1990). A mediational model of the impact of marital conflict on adolescent adjustment in intact and divorces families: The role of disrupted parenting. *Child Development*. 61. pp. 1112-1123.
- Fullinwider-Bush, N., & Jacobvitz, D. B. (1993). The reansition to young

- adulthood: Generational boundary dissolution and female identity development. *Family Process*, 32(1), pp. 87-103.
- Gilbert, Lusia A. & Hanson, Gary R. (1983). Perceptions of Parental Role Responsibilities among Working People: Development of a Comprehensive Measur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Feb.. pp. 203-212.
- Hamner, T. J, Turner, P. H. (2001). *Parenting in contemporary society*(4th ed.). MA: Allyn and Bacon.
- Jurkovic, G. J., Jessee, E. H., & Goglia. L. R. (1991). Treatment of parental children and their families: Conceptual and technical issues,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19, pp. 302-314.
- Jurkovic G. J. (1997). *Last childhoods. The plight of the parentified child.* New York: Brunner/ Mazel.
- Jurkovic, G. J., Thirkeild, A., & Morrell, R. (2001). Parentification in Adult children of divorce: A multidimensional analysi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0, pp. 245-257.
- Medinnus, G. R. (ed.) (1967) *Reading in the Psychology of parent-child relations.* N. Y. : John Wiley.
- Minuchin, s. (1974). *Families and family therap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Nye, F. Ivan. (1976). *Role Structure and Analysis of the Family.* Beverly Hills, CA: Sage.

- Patterson, G. R., DeBaryshe, & Ramsey. (1989). A developmental perspective on antisocial behavior." *American Psychology*. 44. pp. 329-335.
- Rey, J. M., Plapp, J. M. (1990). Quality of Perceived parenting in oppositional and conduct disordered adolescent. *Journal of Acad Child Adolescence Psychiatry*. 29. pp. 382-385.
- Robinson, B. E. (1998). *Burdened children: Theory, Research, and treatment of parentification*, 171-184. Sage.
- Robinson, B. E. (2000). Workaholism and family functioning: A psychological profile of family members. In Robinson, B. E. & Chase, N. D.(2000). *High-performing families: Causes, consequences, and clinical solutions*. American Counseling Association.
- Sato, T. Sakado, K, Uehara, T, Hirano, S, Nisbioka, K, Kasahara, Y. (1998). Dyefunctional parenting as a risk factor to lifetime depression in a sample employed Japanese adults: evidence for the affectless control hypothesis. *Psychol Med*. 28(3). pp. 737-742.
- Sears (1961). The relations of early Socialization experience to aggression in middle childhood. *The Journal & Social Psychology*, 63, pp. 94-99.
- Sessions, M., & Jurkovic, G. J. (1986). Parentification Questionnaire. In Jurkovic, G. J. (1997). *Last childhoods: The plight of the parentified child*. Philadelphia: Brunner/Mazel.

Skeels, H. M. (1966). Adult status of children with contrasting early life experiences: A follow up study.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Serial No. 105.

Wells, M. & Jones, R. (2000). Childhood parentification and shame-proneness: A preliminary study. The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28, pp. 19-27.

## **ABSTRACT**

### **The Influence of Parent-Child Relationship on Degree of Parentification in Undergraduates.**

**Kim Sin Hee**

**Dept. of Family Culture & Consumer Science**

**Graduate School**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influence of parentification on parent-child relationship of undergraduate Students. The research ques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what is the general feature of parentification? Second, is there a difference parentification and quality of parent-child relationship as Social demographic variable? Third, is there a difference parentification and quality of parent-child relationship ? Finally, what are the other factors which influence quality of parent-child relationship?

The Instrument used in this study was a questionnaire with items to support of the research questions. The questionnaire obtained back ground data and information on a degree of parentification and a quality

of parent-child relationship. To measure parentification, this study used a revised version of Sessions & Jurkovic's (1996) questionnaire.

A total of three hundreds seventy (N=370) Korean undergraduate students living in Seoul and Kyunggi-province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e student completed Parentification Questionnaire-Adult, Parent-Child Relationship.

I analyzed the data by first conducting descriptive statistics and than conducted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Duncan's Multiple Range Test using SPSS WIN 14.0.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most students are placed in middle group at degree of parentification and students have relatively good relationship with their mother.

Second, generally, women have higher degree of parenificaiton than men. Also, the degree of parentification was high when the family member have disease, family has low income, and in single-parent family. In case of quality of relationship with father and child, son and dad relationship quality are better than daugther's. Also child had good relationship with their father when they live parents, family income high, and family form is nuclear family. In case of child-mother relationship, children had good relationship with their mother when they live with

parents and their father do the house work himself.

Third, father and mother both had relatively high degree of parentification when they had low quality of relationship with their children. However, the quality of mother and child relationship is not in inverse proportion to the degree of parentification. The quality of relationship with mother and child have big difference in high degree of parentification group comparing with mid-group and low-group.

Fourth, this study found the factors which can effect child-parent relationship using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 When the parents live child, age is low, and the degree of parentification is high, the quality of father-child relationship is high and the factors' influence power is greater in the order of appearance. On the other hand, the quality of father and child relationship is low when parents have disease. When one of the family member has disease, the quality of mother and child relationship is low because mother have to care and help the sick member.

**부록1. 사회인구학적 변인, 부모-자녀관계의 질과 부모화 정도의 상관관계**

	부모화 정도	부-자 관계 질	모-자 관계 질	성별	연령	결혼 상태 (부모)	소득	종교	출생 순위	부 학력	모 학력	질병 유무	질병 유무자	가사 수행자	가족 형태
부모화 정도															
부-자 관계 질	-.219 <sup>*</sup>														
모-자 관계 질	-.128 <sup>*</sup>	.52 <sup>**</sup>													
성별	.197 <sup>*</sup>	-.166 <sup>*</sup>	-.094												
연령	-.060	-.080	.073	-.347 <sup>**</sup>											
결혼 상태 (부모)	.152 <sup>*</sup>	-.25 <sup>*</sup>	-.167 <sup>*</sup>	.139 <sup>*</sup>	.021										
소득	-.180 <sup>*</sup>	.197 <sup>*</sup>	-.041	-.012	-.025	-.157 <sup>*</sup>									
종교	-.057	-.064	-.015	.104 <sup>*</sup>	-.127 <sup>*</sup>	-.019	-.041								
출생 순위	-.029	.013	.071	-.027	.015	.09	-.035	.040							
부 학력	-.025	-.007	-.049	-.002	-.141 <sup>*</sup>	-.036	.297 <sup>*</sup>	-.090	-.043						
모 학력	-.026	-.004	-.078	.006	-.144 <sup>*</sup>	-.034	.302 <sup>*</sup>	-.105	-.119 <sup>*</sup>	.72 <sup>**</sup>					
질병 유무	-.134 <sup>*</sup>	.072	-.062	-.121 <sup>*</sup>	-.044	.009	.104 <sup>*</sup>	.021	.008	.124 <sup>*</sup>	.185 <sup>*</sup>				
질병 유무자	-.133	-.140	.067	-.142	.099	.141	-.023	-.047	-.196	-.133	.015	-.199			
가사 수행자	.124 <sup>*</sup>	-.017	-.055	.085	-.004	.240 <sup>*</sup>	.074	-.018	.064	.045	.057	.014	-.028		
가족 형태	.128 <sup>*</sup>	-.148 <sup>*</sup>	-.002	-.099	.017	.172 <sup>*</sup>	-.059	-.039	.051	-.009	-.084	-.160 <sup>*</sup>	-.218	.149 <sup>*</sup>	

\* p<0.05    \*\* p<0.01    \*\*\* p<0.001

부록2. 설문지

No. \_\_\_\_\_

안녕하십니까?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부모화 정도에 따른 부모자녀관계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질문에 대한 응답은 정답이 없으므로, 평소 여러분의 생각이나 모습대로 솔직한 게 응답해 주시면 됩니다.

부모님이 모두 생존해 계시는 분들만 응답해주시길 바랍니다.

문항이 많고 다소 중복되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고, 최종 페이지까지 한 문항도 빠 짐없이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의 설문지는 익명으로 처리될 것이며, 따라서 여러분 각자가 응답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절대 비밀이 보장됩니다.

본 연구에 도움을 주셔서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신여자대학교 가족문화소비자학과

지도교수 김 태 현  
연구원 김 신 희

■ 본 조사의 결과는 통계법 제 8조에 의거하여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다음 문항들은 귀하가 성장하는 동안 경험했을 수도 있었던 것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만약 다음 설명이 귀하의 어린 시절(사춘기를 포함, 당신이 가족과 함께 살아온 시간)경험의 일부분을 **정확히 묘사하고 있다면 '예'에 ✓**를 하시고, **당신의 경험과 다르다면 '아니오'에 ✓**를 써 넣어 주십시오.

문 항	예	아니오
1) 나는 다른 가족들의 자질구레한 일들을 거의 할 필요가 없었다.		
2) 가끔씩 내가 부모님이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였다고 느꼈었다.		
3) 가족 구성원들은 거의 내게 조언을 청한 적이 없었다.		
4) 나는 우리 집에서 종종 나의 뉘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받는다고 느꼈었다.		
5) 나는 종종 우리 집에서 아웃사이더처럼 느껴지곤 하였다.		
6) 누군가 내게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때 나는 우리 집에서 가장 소중하다고 느꼈었다.		
7) 내가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도 우리 집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았다.		
8) 집에서 나는 자기 문제는 자기가 해결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다.		
9) 나는 종종 나에게 어떤 일들을 하라고 하면 분개했다.		
10) 우리 집에서 나는 대체로 결국 모든 일들을 책임지게 되는 사람 같았다.		
11) 나는 마음속으로 우리 가족들의 안녕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었다.		
12) 우리 가족 중 누군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들은 거의 나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았다.		
13) 나는 자주 우리 가족 중 누군가를 신체적으로 보살펴야 하는 책임을 졌었다. (예. 씻기기, 식사 도와주기, 옷 입히기 등)		
14) 우리 가족들은 서로 편을 들어줄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다.		
15) 우리 가족들은 종종 내 감정은 헤아려주지 않는 것 같았다.		
16) 나는 종종 어떤 특별한 이유 없이 우울해지는 나를 발견했다.		
17) 우리 가족에는 다른 어떤 사람보다 내가 더 잘 다룰 수 있는 구성원들이 있었다.		
18) 나는 종종 나보다 나이가 더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선호했다.		
19) 나는 우리 가족들로 인해 우울해진 적이 거의 없었다.		
20) 나는 부모님의 갈등에 끼어 든 적이 거의 없었다.		

뒷면 계속➡

문 항	예	아니오
21) 나는 보통 가족들에게 내 감정을 말하는 것이 편했다.		
22) 나는 우리 가족들에 대해서 걱정해본 적이 거의 없었다.		
23) 어렸을 때 나는 종종 나이보다 어른스럽다는 이야기를 들곤 하였다.		
24) 우리 집에서 나는 종종 내가 종재자 같다고 느꼈었다.		
25) 우리 집에서 나는 대부분의 오락적인 일들을 주도하였었다.		
26) 우리 가족들은 항상 내게 자기들의 문제를 가져오는 것 같았다.		
27) 부모님은 집안일에 대한 걱정 말고도 할 일이 잔뜩 있었다.		
28) 우리 집에서 나는 종종 가족들이 모르는 희생을 하였다.		
29) 부모님은 내게 문제가 있었을 때 큰 도움이 되어주셨다.		
30) 우리 가족들 중 한 명이 화가 났다면, 나는 항상 어떻게든 개입이 되어졌을 것이다.		
31) 나는 보통 그럭저럭 집안일을 피할 수 있었다.		
32)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 특히 우리 가족은 나를 꽤 잘 이해했다고 믿는다.		
33) 어렸을 때 나는 우리 가족들 모두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다.		
34) 부모님은 중요한 것들에 대해 거의 반대하지 않으셨다.		
35) 나는 종종 내가 우리 집에서 아이라기보다는 어른 같다고 느끼곤 했었다.		
36) 나는 가족들보다는 친구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던 것 같다.		
37) 우리 가족들은 그들을 돌보는 일에 거의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았다.		
38) 나는 집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잘 풀리지 않았을 때 매우 불편하였다.		
39) 우리 집에서 모든 일들에 대한 책임을 동등하게 나누어 가졌었다.		
40) 나는 집에서 식사준비를 해본 적이 거의 없었다.		
41) 나는 우리 가족들의 경제적인 문제들을 처리하는 데 매우 적극적이었다.		
42) 나는 위기 때마다 최선을 다하였다.		

뒷면 계속➡

다음 문항들을 읽고 평소 일상생활 속에서 어머니/아버지에게 느꼈던 귀하의 경험이나 생각을 아래의 보기 중 해당되는 번호를 골라 네모 칸(어머니/아버지) 안에 각각 써 넣어 주십시오.

(보기)    ① 전혀 아니다    ② 약간 아니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문 항	어머니	아버지
1) 어머니/아버지는 나의 든든한 후원자시다.		
2) 어머니/아버지를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이 든다.		
3) 어머니/아버지는 나의 고민을 잘 들어주시고 이해해 주신다.		
4) 어머니/아버지와 함께 있는 시간이 좋다.		
5) 어머니/아버지는 나를 가장 잘 아는 친한 친구 같은 분이시다.		
6) 어머니/아버지는 나를 위해 무슨 일이든지 하신다.		
7) 어머니/아버지는 내가 힘들거나 짜증나는 일이 있을 때 잘 보듬어 주신다.		
8) 어머니/아버지는 나의 의견을 존중해 주신다.		
9) 나를 위해 끝없이 희생하시는 어머니/아버지의 모습을 보면 측은한 마음이 든다.		
10) 어머니/아버지는 존경스럽고 본받고 싶은 분이시다.		
11) 어머니/아버지에게 효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12) 어머니/아버지는 힘들거나 어려운 일이 있어도 언제나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 주신다.		
13) 어머니/아버지는 나를 위해 희생하신다.		
14) 어머니/아버지에게 나의 비밀을 얘기할 수 있다.		
15) 나를 언제나 헌신적으로 뒷받침해 주시고 길러주시는 어머니/아버지에게 감사하다.		
16) 어머니/아버지는 나에게 대해 걱정해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신다.		
17) 어머니/아버지에게 잘 해드리지 못해 미안한 마음이 든다.		
18) 어머니/아버지는 나에게 친근하게 대하신다.		
19) 어머니/아버지는 자신보다 나를 먼저 챙기신다.		
20) 어머니/아버지는 나에게 필요한 조언을 잘 해주신다.		
21) 나는 나의 어머니/아버지가 자랑스럽다.		
22) 어머니/아버지는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 않으셔서 걱정이 된다.		
23) 어머니/아버지는 나의 인생관과 가치관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이시다.		

뒷면 계속➡

◆ 다음은 여러분의 간단한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들입니다. 한 문항도 빠짐없이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1. 성별 : 남(        ), 여(        )
2. 나이 : ( 만 \_\_\_\_\_ 세 )
3. 현재 부모님의 결혼 상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한 항목만 선택)  
① 함께 살고계심      ② 별거  
③ 이혼                      ④ 이혼 후 재혼
4. 현재 가정의 월 소득수준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200만원 이하                      ② 200~300만원 사이  
③ 300만원~500만원 사이      ④ 500만원 이상
5. 현재 본인의 종교는 어떻게 되십니까?  
① 가톨릭    ② 기독교    ③ 불교    ④ 기타    ⑤ 없음
6. 본인의 출생순위는 어떻게 되십니까?  
① 장남/장녀    ② 막내    ③ 그외 순위
7. 부모님의 최종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7-1. 아버지  
① 중졸 미만    ② 중졸    ③ 고졸    ④ 대졸    ⑤ 대학원 이상  
7-2. 어머니  
① 중졸 미만    ② 중졸    ③ 고졸    ④ 대졸    ⑤ 대학원 이상
8. 가족원 중에 질병이 있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① 예    ② 아니요  
8-1. ①응답시 가족원 중 누구가 질병이 있으십니까?  
① 아버지    ② 어머니    ③ 조부모(할머니/할아버지)    ④ 형제 · 자매
9. 본인 덕의 집안일(예: 가사일, 자녀양육)을 돌봐주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① 어머니                      ② 아버지                      ③ 파출부  
④ 형제자매                      ⑤ 기타\_\_\_\_\_ (구체적으로)
10. 본인의 현재 가족형태는 어떻게 되십니까?  
① 핵가족('부부혹은 부부와 미혼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가족)  
② 확대가족('시가 혹은 처가'와 함께 사는 가족)  
③ 기타\_\_\_\_\_ (구체적으로)

《 귀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